

한국CBDC와 원화의 국제화 전략

-한국 금융의 시야 확장-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CKGSB EMBA, 크립토MBA 주임교수)

김문수 교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상태방정식, 토큰 Dynamics 등 토큰 경제학의 주요 모델을 창시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장사, 스타트업, 비정부기구 등 20여 곳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고 자문하며 블록체인의 사회화와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전략적 패턴/ 토큰 기반 마케팅 전략과 토큰 가치 확보 전략
- 토큰 상태 방정식과 토큰 Dynamics/ 블록체인 Data의 실증적 분석
- 토큰 이코노미 구조 분석
- 딥러닝 메커니즘과 인공지능 경영 전략

산업 경력

-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상 후보

학력

-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경영학 박사

주임 교수 담당 과정

크립토MBA (3월 7일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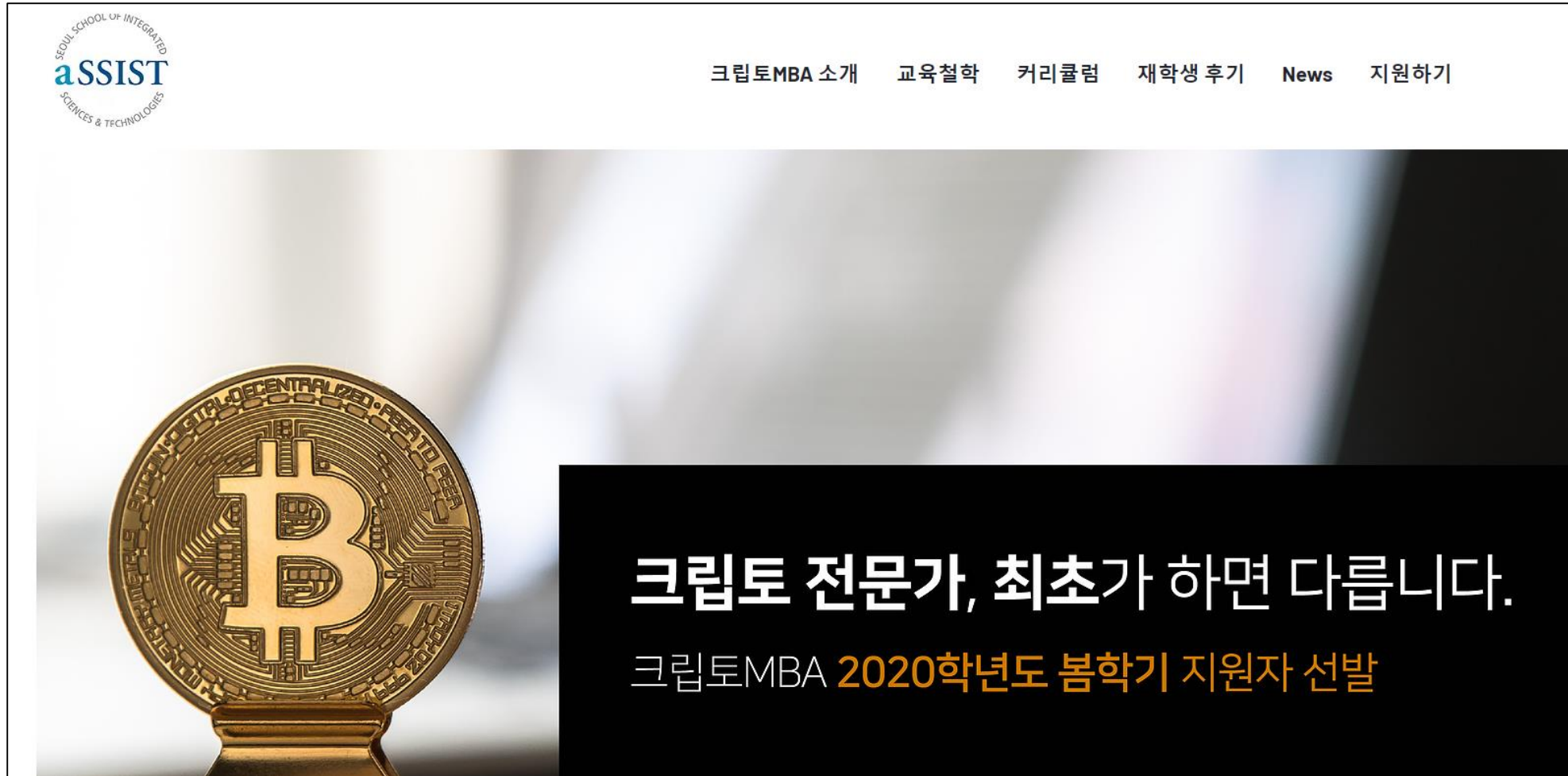
경영대학원 최초의 크립토 MBA 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의 학술적 배경과 최신 지식을 기술적 관점/ 화폐경제학적 관점 /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디지털 크립토 전략가 양성과정입니다.

CKGSB EMBA (2020.5 개강)

중국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CKGSB(장강상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Dual Degree EMBA 입니다. 중국 Top 10 도시를 탐방하며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디디추싱, DJI, BYD 등 중국 최고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중국 전역의 CKGSB 동문들과 교류하는 Top-tier EMBA 과정입니다.

크립토MBA 홈페이지

<https://www.cryptomba.io/>



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Bitcoin.com [Start here](#) [News](#) [Forum](#) [Games](#) [Buy Bitcoin](#) [Mining](#) [The North American Bitcoin Conference](#) [PSA](#) [BCH/USD \\$194 ▲](#) [BTC/USD \\$4040 ▲](#) [menu](#)

[BUY BITCOIN >](#) [BITCOIN DEBIT CARD >](#) [CHOOSE A WALLET >](#)

**Bitcoin Cash
Developer Tools**

Ready to build amazing Bitcoin Cash products? Check out our developer tools for detailed tutorials and information about developing with Bitcoin Cash!

[DEVELOPER TOOLS >](#)

Latest News >

[Featured](#) [Economy & Regulation](#) [Technology & Security](#) [Market Updates](#) [Editorial & Announcements](#)



South Korean Business School Launches Crypto MBA Program



Poll Shows 13% of Russians Use Cryptocurrency for Online Purchases



Cryptocurrency and Taxes: How to Use 2018's Losses to Your Advantage



BitcoinCash.org Publishes Redesigned Website and Development Roadmap

aSSIST, Launches the World's First Crypto MBA

1 hour ago | Kevin Helms | 846

South Korean Business School Launches Crypto MBA Program



Instantly swap cryptocurrencies

Try it now

A major business school in South Korea is now offering a master's degree in cryptocurrency. Crypto MBA is a one-and-a-half-year program that covers topics such as Bitcoin, Ethereum, smart contracts, crypto funds, Dapp planning, game theory, and how to write persuasive whitepapers. Meanwhile,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follow-up crypto regulations.

Also read: [Indian Supreme Court Moves Crypto Hearing, Community Calls for Positive Regulations](#)

Crypto MB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often known as Assist, announced on Friday that it is now offering a



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School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과정구성	• 주말 수업/1.5년/3학기
특 징	• 오래된 경영학이 아닌 최신 경영학 • AI/빅데이터/블록체인/크립토 등 디지털 금융 전략 집중 • 재학생/동문의 70%가 CEO/창업자/투자자
모집 정원	• 15명 소수정예
동문 기업	• 빗썸 글로벌, Dcoin, KB금융, 아하, 체인브릿지, 땡글, 스타시아, BeNative, 법무법인 더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다수
부속 연구소	• 디지털 화폐금융연구소/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 • 디지털 중국연구소/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1학기	•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u>안재욱 교수</u>) • 딥러닝의 이해와 케라스 실습 (김태영 교수) • AI와 암호학의 이해 (김문수 교수) • 탈중앙데이터의 분석과 Defi (dsrv labs 김지윤 교수) • 경영전략 (이윤철 교수) • 논문 작성 기초와 전략 (김성민 교수) • Jamovi 통계와 실습 (설현수 교수) • 중국의 이해와 중국 경영 전략(백권호 교수) • 하이퍼레저의 구조와 운영(ETRI 윤대근 교수) • 크리에이티브 씽킹과 문제 해결 (오상진 교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2학기	• 비트코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 이더리움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디지털 화폐(CBDC) • 디지털 민주주의 • 전략적 통계와 크립토 데이터 분석 • 미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거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자산토큰화(STO) • 양자 컴퓨터 메커니즘의 이해 •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19년 1학기	• 암호학 메커니즘의 이해 • EOS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자금세탁방지과 크립토 세무회계 •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금융학 • 행동경제학과 인센티브 설계 전략 • 게임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 디지털 자산 거래소 • 블록체인 기반 기부 시스템 • 핀테크 경영전략

한국CBDC와 원화의 국제화 전략

-한국 금융의 시야 확장-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CKGSB Top-tier EMBA 주임교수
aSSIST CEO 디지털 최신화과정 주임교수

김문수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중국 CBDC의 가장 강력한 동인은?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21710377>

한국경제

생활·문화

위안화 지폐 찢어버리는 중국..."전자결제 해라"

입력 2020.02.17 11:39 | 수정 2020.02.17 11:39

중국, 위안화 지폐 '파쇄'

병원·버스·재래시장 수거 화폐, 골장 폐기

클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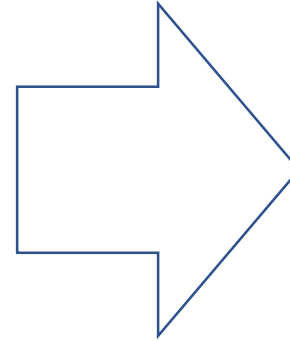
중국의 화폐 '위안화 지폐'가 격리되고 파쇄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17일 차이신(財新)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질병 확산 중점 지역'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회수된 현금을 소독하고 14일간 보관한 뒤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다. 중국 보건 당국이 현금의 위생 관리까지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이 이런 조처에 나선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만지는 지폐 등 현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의 경우 주로 감염자에서 나온 비말로 전파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 쇼핑카트 손잡이, 지폐 같은 물건을 통해서 퍼질 수도 있다.

글로벌 CBDC 진행 상황 탐색 순서

[美-日-유럽-中]



한국

- 국제 화폐 기득권이 높은 순서대로

NEWS ▾LEARN ▾RESEARCH ▾EVENTS

Bitcoin 24h **\$9,789.47** -0.08%Ethereum 24h **\$268.22** +6.51%XRP 24h **\$0.290754** +3.00%Bitcoin Cash 24h **\$409.93** +5.20%

Story from **Policy & regulation** →

Fed Reserve Is Researching **DLT-** **Based Digital Dollar,** Says Governor

Feb 6, 2020 at 12:00 UTCUpdated Feb 6, 2020 at 15:09 UTC





 BCH \$410.01

 BTC \$9,790.48

[Get Started](#) [Wallet](#) [Mining](#)



Facebook, China Light Flame Under Fed:
Governor Cites Stablecoins Influencing
Digital Dollar Research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eral Reserve, the central bank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e nation with a safe, flexible, and stabl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About the Fed](#) | [News & Events](#) | [Monetary Policy](#) | [Supervision & Regulation](#) | [Payment Systems](#) | [Economic Research](#) | [Data](#) | [Consumers & Communities](#)

Home > News & Events > Speeches

Speech

February 05, 2020

The Digitalization of Payments and Currency: Some Issues for Consideration

Governor Lael Brainard

At the Symposium on the Future of Payments, Stanford, California

Share

I want to thank Darrell Duffie for inviting me to discuss the future of payments.¹ Digitalization is

달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는 CBDC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의 최전선에 머무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중앙 은행과 마찬가지로 분산 원장 기술 및 CBDC 가능성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 사용 사례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다른 중앙 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美 연준 이사 Lael Brainard



Search the website 

[Home](#) / [Central bank hub](#) / [Central bankers' speeches](#)

Central bank hub

- Overview
- Central bank and monetary authority websites
- Central bankers' speeches**
- Research hub 

Lael Brainard: Digital currencies, stablecoins, and the evolving payments landscape

Speech by Ms [Lael Brainard](#), Member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t the conference "The Future of Money in the Digital Age", sponsored by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Princeton University's Bendheim Center for Finance, Washington DC, 16 October 2019.

 **Central bank speech** | 17 October 2019
by [Lael Brainard](#)
 [PDF full text \(80kb\)](#) | 15 pages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금융 안정성 및 통화 정책 전송을 유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마찰과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혁신의 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발생하는 혁신이 연방 준비법 (Federal Reserve Act)에 반영된 바와 같이 운영 책임과 광범위한 공공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지원하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어떤 (myriad : 무수) 형태의 돈이 있는 곳이든지 그에 연결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계속 육성할 것이다.

美 연준 이사 Lael Brainard

yahoo!
finance

Search for news, symbols or companies

Finance Home Watchlists My Portfolio Screeners Premium Markets Industries Personal Finance

당신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세요.

Trump Fed Nominee Judy Shelton Says US Should Be Proactive on Digital Dollar



 David Pan
CoinDesk February 14, 2020

영국·일본·유럽연합 등 6개국 중앙은행, 4월 첫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02-06 목 15:00



일본-유럽 중앙은행 등 디지털 통화 발행 공동 연구
• 중국이나 리브라에 대항

日本経済新聞

朝刊・夕刊 ストリー

トップ 速報 経済・金融 政治 ビジネス マーケット テクノロジー 国際 オピニオン スポーツ 社会・暮らし

IBM Watsonは、知見を導き出すサポートをします。

デジタル通貨共同研究、米識者に聞く

FRBは中国人民銀を注視、既存通貨と競合も

ヨーロッパ

2020/1/22 4:48 (2020/1/22 6:09更新) |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保存 共有 印刷 共有 Twitter Facebook その他

日銀や欧州中央銀行（ECB）など6つの中央銀行は21日、中銀によるデジタル通貨（CBDC）の発行を視野に新しい組織をつくると発表した。技術的な課題について共有するのがねらい。中銀のデジタル通貨が中長期的に金融市場に与える影響や、今回の枠組みに参加しなかった米連邦準備理事会（FRB）の動向について、米国の識者に聞いた。

美 지식인에게 디지털 통화 공동연구 물어보다
• FRB는 中인민은행 주시, 기존 통화경쟁도

일본 (일본은행 자료)

https://www.boj.or.jp/paym/r_menu_ron/index.htm/?

**日本銀行**
BANK OF JAPAN

🏠 ホーム 👤 新卒採用 🏢 見学等 📞 ヘルプ ✉ お問い合わせ

日本銀行について 金融政策 金融システム 決済・市場 銀行券/国庫・国債 国際金融 調査・研究

決済・市場

🏠 ホーム > 決済・市場 > 決済・市場に関連する論文等の一覧

決済・市場に関連する論文等の一覧

English

掲載日	タイトル
2020年 2月12日	Project Stella (プロジェクト・ステラ) : 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報告書 (第4フェーズ)
2020年 1月27日	わが国レボ市場の透明性向上のための新たな取り組みー「FSBレボ統計の日本分集計結果」の公表開始ー
2019年11月29日	中央銀行がデジタル通貨を発行する場合に法的に何が論点になりうるのか：「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法律問題研究会」報告書の概要
2019年 8月 2日	現物国債市場におけるボラティリティと取引高の関係

掲載日	タイトル
2020年 2月12日	Project Stella（プロジェクト・ステラ）：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報告書（第4フェーズ）
2020年 1月27日	わが国レポ市場の透明性向上のための新たな取り組み―「FSBレポ統計の日本分集計結果」の公表開始―
2019年11月29日	中央銀行がデジタル通貨を発行する場合に法的に何が論点になりうるのか：「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関する法律問題研究会」報告書の概要
2019年 8月 2日	現物国債市場におけるボラティリティと取引高の関係

2020.2.12

Project Stella (프로젝트 스텔라) : 일본 은행 ·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분산 대장 기술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 (제 4 단계)

2019.11.29

중앙 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무엇이 논점이 될 수 있는지 :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법률 문제 연구회" 보고서의 개요

2019年 8月 2日	国債市場における銘柄間の相対価格差について
2019年 6月 4日	Project Stella (プロジェクト・ステラ) : 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報告書 (第3フェーズ)
2019年 5月30日	国債決済期間短縮 (T+1) 化後の市場取引動向 —レポ市場を中心に—
2019年 2月19日	情報技術革新・データ革命と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

2019.6.4

Project Stella (프로젝트 스텔라) : 일본 은행 ·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분산 대장 기술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 (제 3 단계)

2019.2.19

정보 기술 혁신 데이터 혁명과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2018年 3月27日	Project Stella (プロジェクト・ステラ) : 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報告書 (第2フェーズ)
2018年 3月19日	現物国債市場の流動性 : 高粒度データによる検証
2018年 2月28日	証券決済制度と分散台帳技術
2017年10月19日	FinTech時代の銀行のリスク管理
2017年10月12日	ユーロの利便性向上に向けた欧州の取組みー 欧州決済インフラの統合および高度化 ー

2018.3.27

Project Stella (프로젝트 스텔라) : 일본 은행 ·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분산 대장 기술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 (제 2 단계)

2019.2.28

증권 결제 제도와 분산 대장 기술

2017年 9月 6日	Project Stella（プロジェクト・ステラ）：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報告書
2017年 6月16日	クロスボーダー円資金決済の発展に向けて－日銀ネットの有効活用に向けた事業法人向けアンケート調査結果－
2017年 6月 9日	グローバルな国債レポ市場の動向
2017年 6月 7日	最近のOTCデリバティブ市場の動向－OTCデリバティブ統計からみた特徴点－
2017年 6月 7日	SCレポ市場からみた国債の希少性
2017年 6月 5日	2016年度の金融市場調節
2017年 5月26日	「グローバル外為行動規範」最終版の公表－グローバルに単一の外為行動規範の策定と遵守促進に向けた取り組み－
2017年 3月23日	ブロックチェーン・分散型台帳技術の法と経済学

2017.9.6

Project Stella (프로젝트 스텔라) : 일본 은행 ·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분산 대장 기술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

2017.3.23

블록체인 분산대장 기술의 법경제학

2017年 3月 9日	主要国における24/7即時振込導入と決済サービスの高度化
2017年 2月10日	BIS国際銀行統計の拡充と日本分集計結果の特徴点
2016年12月 9日	国債市場のネットワーク分析とシステミックリスクへの応用
2016年11月17日	中央銀行発行デジタル通貨についてー海外における議論と実証実験ー

2016.11.17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 – 해외에서의 논의와 실증 실험

中国电子银行网 www.cebnet.com.cn 首页 资讯 ▾ 原创 ▾ 名家专栏 ▾ 宣传年 Bank帮

搜索 手机端 投稿 登录

数字银行 网络支付 金融AI 区块链 金融云 银行动态 信息安全

中国电子银行网 银行家 今日头条 **报告行长大人** 第三届中国银行与金融科技行业创新实践文字竞技秀 [查看详情](#) 广告

各国开放银行政策观察 发展重点不同但问题相似

降息潮能否挽救经济?

区块链技术 深圳获准尝鲜数字货币

盛银消费金融换帅获批复

财源源 [智选平台 广聚财缘](#) 广告

热文排行 今日热点 每周排行

<https://www.cebnet.com.cn/>

중국전자은행망(中国电子银行网)

<https://www.cebnet.com.cn/aboutpage/>



- 중국의 금융 인증 센터와 100여 개의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 중국의 금융 뉴스, 칼럼, 논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엄선

2017.2.3 통화당국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https://www.cebnet.com.cn/20170203/102360807.html>

 中国电子银行网
www.cebnet.com.cn

首页 资讯 ▾ 原创 ▾ 名家专栏 ▾ 宣传年 Bank帮

数字银行 网络支付 金融AI 区块链 金融云 银行动态 信息安全

盛松成：货币当局为何要发行央行数字货币？

 盛松成 来源：清华金融评论 2017-02-03 08:47:46  央行 数字货币 金融科技

核心提示 货币当局为何要发行央行数字货币？仅仅是为了取代现金吗？仅仅是为了节约现金印制成本吗？显然不是。

 货币当局为何要发行央行数字货币
货币当局为何要发行央行数字货币

自2009年比特币问世以来，各种形式的私人数字货币发展极为迅速，国际金融机构和技术公司都纷纷投入数字货币的研发，并已取得一定进展。在这一背景下，主要经济体货币当局纷纷开始研究央行数字货币，我国也不例外。

-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스템 유동성 증가, 거래 비용 감소
- 국가가 승인하는 화폐의 권한을 가지고 통화당국에 의해 규제됨
- 자금 흐름 추적, 자금 세탁 감독, 탈세 감독 용이
- 통화 정책의 이자율 관리 용이, 통화 발행 및 통화 정책 관리 용이

2017.4.28 중국 인민은행 과학기술국 부국장 : CBDC와 은행 계좌의 계층화

<https://www.cebnet.com.cn/20170428/102387516.html>



- 상업 은행 전통 계정 시스템 기반 + 디지털 지급의 결합
- CBDC는 M0통화(현금) 성격의 통화
-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발급하여 분배하거나,
-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중앙은행을 이를 승인하는 경우의 수 존재

2017.5.24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조기발행이 직면하고 있는 5가지 문제

<https://www.cebnet.com.cn/20170524/102393823.html>



- 법적 디지털 통화와 개인 디지털 통화 사이의 계정 시스템 문제
- 회계 인식 문제
- 현금 인출 문제
- 네트워크 결제 문제
- 재정 및 세금 구조 문제

2017.11.6 CBDC 발행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470.html>



- 중국 공산당 제 19차 국회 보고서 :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행동의 필요성/경제 건설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의 번영 개발 및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 제안.
- 이를 위해 법정디지털 통화 적용/ 기술 선택/ 관련 법규 제정/ 생태계 구축의 4가지 요소 필요

2017.11.6 법정디지털통화로 통화정책과 거시 경제정책 개선 가능

<https://www.cebnet.com.cn/20171106/102439600.html>



- 금융이 경제의 핵심이고 경제의 혈액이라면, 돈이 경제의 핵심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법정디지털화폐가 필요
- 법정디지털 화폐는 금융 기술의 핵심
- 법정디지털 화폐를 통해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2017.12.20 미래의 디지털통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형 통화이다

<https://www.cebnet.com.cn/20171220/102450512.html>



- 법정디지털 화폐의 핵심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 통화
- 지정된 시간, 지정된 위치, 지정된 판매자에서 결제 예약 및 제한 가능
- 목적에 따라 지정된 집행 조건 삽입 가능 (예: 자선 기금 등)

2018.9.13 CBDC는 금융권력의 패권을 바꿀 것이다

<https://www.cebnet.com.cn/20180913/102520972.html>

 **中国电子银行网**
www.cebnet.com.cn

首页 资讯 ▾ 原创 ▾ 名家专栏 ▾ 宣传年 Bank帮

数字银行 网络支付 金融AI 区块链 金融云 银行动态 信息安全

再造央行：法定数字货币将改变金融权力格局

来源：和讯网 2018-09-13 00:58:31 央行 数字货币 金融科技

核心提示 中国央行对待区块链和法定数字货币显然更加积极，且成果显著

与美联储的否定和傲慢态度相比，中国央行对待区块链和法定数字货币显然更加积极，且成果显著。近日，央行数字货币研究所动作频频，外界对央行法定数字货币的猜想逐渐升温。区势传媒Lockel以“数字货币再造央行”为主题，介绍中国央行在法定数字货币领域的研究成果以及法定数字货币如何改变金融市场的权力格局。

央行布局区块链金融，研究法定数字货币

- 미국 연준(Fed)의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비하여,
- 중국 인민은행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 연구에 있어 더 활발하고 성과도 크다.

2019.7.22 CBDC로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https://www.cebnet.com.cn/20190722/102588017.html>



- **Libra에 비해 중국의 Alipay와 WeChat는 중앙은행에 100%의 준비금을 지불하며 안정적이다.**
- **CBDC로 인해 위안화가 국제화 될 수 있다.**
- **디지털 통화는 유동성을 개선시켜 재정 및 통화 흐름을 증가시킨다.**

2019.8.5 중국 중앙은행이 CBDC를 자주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https://www.cebnet.com.cn/20190805/102591630.html>



- 바람이 불 때는 바람에 맞서지 말고 바람에 타는 것이 좋다. (等风来, 不如追风去。)
-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출시할 것이다.
- 중국의 디지털화폐는 선점의 효과가 있다.

MBC 뉴스

홈 | 뉴스데스크 | 엠빅뉴스 | 14F | 정치 | 사회 | 국제 | 경제 · 과학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더

경제 · 과학  강나림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인 적어...연구는 지속"

입력 2020-02-05 14:09 | 수정 2020-02-05 14:11

 0  가   

Google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인 적어

전체 이미지 뉴스 지도 동영상 더보기 설정 도구

검색결과 약 14개 (0.45초)

www.msn.com > ko-kr > money > topstories > ar-BBZEYxW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인 적어...연구는 ... - MSN.com
2020. 2. 5. - 중국선 소액지급용 결제시스템 일부 도시서 테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

www.mk.co.kr > news > economy > view > 2020/02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인 적어...연구는 지속" - 매일 ...
2020. 2. 5. -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
이 페이지를 2번 방문했습니다. 최근 방문 날짜: 20. 2. 17

imnews.imbc.com > 경제/과학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유인 적어...연구는 ... - MBC 뉴스
2020. 2. 5. -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

theviewers.co.kr > View ▼
한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우수해 디지털화폐 유인 적어 ...



전략 도출 과정의 문제제기

- 지금 결제 인프라가 우수해 CBDC 발행유인이 적다면,
- 美-中은 한국보다 지금 결제 인프라가 뒤쳐져 있을까?

- 日-유럽이 CBDC를 공동연구하는 것은,
- 日-유럽 공동 지금 결제 인프라를 연구하는 것일까?
- 中은 왜 CBDC를 선점하려 하는 걸까?

- [美-中-日-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전략 도출 과정 점검

[美-中-日-유럽]

VS

한국

- 기축통화 보유국
- 국제통화 보유국

- 기축통화 미보유
- 국제통화 미보유

✓누가 더 디지털 화폐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해야 할까?

[사설] 디지털화폐 선점하려는 中, 우리도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입력 : 2020.02.17 00:01:01

0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해 국제 특허 84개를 출원했다고 한다. 블록체인의 회사들의 단체인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라는데 CBDC가 물고올 변화와 혁신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위안화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인민은행이 출원한 특허들은 디지털 화폐를 기존의 은행 결제·계좌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기술들을 담고 있다. CBDC 발행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민간회사의 자동결제 시스템 독점을 막고 디지털 화폐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 화폐제조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전산 오류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설명도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CBDC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전자결제가 이미 보

[사설] 디지털화폐 선점하려는 中, 우리도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입력 : 2020.02.17 00:01:01



는 해석도 있다. CBDC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전자결제가 이미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CBDC가 굳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과 함께 한국은행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또 기타고피나트 IMF 수석경제학자는 "달러화는 미국의 제도, 법률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디지털 화폐가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기축통화는 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 중앙은행 중 80%가 이미 CBDC 연구에 착수한 것은 예측하기 힘든 잠재력과 파장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의 6개 중앙은행과 CBDC 연구그룹을 조직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결제 수단이나 기술이 법적·제도적 변화를 유발하며 통화 안정에도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4일 비로소 디지털화폐연구팀을 발족했는데 이 기술·제도적 변화 흐름에서 뒤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한국은행 CBDC를 위한 포인트-한국은행법 제 49조/79조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 CBDC이해를 위한 포인트-한국은행법 제 49조/79조

나.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 「한국은행법」 제49조를 CBDC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CBDC의 구현방식 특성, 한국은행권을 지폐(紙幣)로 보는 일반의 인식, CBDC 발행근거 관련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근거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는데(제49조, 제53조)¹⁰⁰⁾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

① 먼저 「한국은행법」 제49조의 **‘어떠한 규격·모양’**을 넓게 해석하여 CBDC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견해¹⁰¹⁾가 있음

한국은행 CBDC이해를 위한 포인트-한국은행법 제 49조/79조

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제79조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¹⁰⁵⁾가 있음

— 「한국은행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유지하는 한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

— 이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려면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개정이 필요

② 이에 반해 다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하지 않고 CBDC를 직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한국은행이 단일원장 또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CBDC를 직접운영하는 경우 제도의 특성상 개인·기업이 한국은행에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은행법」(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에 CBDC 계좌·전자지갑 개설 조항이 신설될 것임

○ 이와 같은 개인·기업의 CBDC 계좌 관련 신규 조항은 「한국은행법」 제79조에서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국은행 CBDC이해를 위한 포인트-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 구성 및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본회의 이외의 회의로는 상정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이 있다. 한편, 대 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CBDC이해를 위한 포인트-금융통화위원회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개정 2016. 3. 29.>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 CBDC이해를 위한 포인트-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현황

🏠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 위원현황



직위	성명	임기	선임절차	선임절차 규정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
의장	이주열(李柱烈) 이력보기 ▼	2014. 04. 01 ~ 2022. 03. 31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이일형(李一衡) 이력보기 ▼	2016. 04. 21 ~ 2020. 04. 20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조동철(曹東徹) 이력보기 ▼	2016. 04. 21 ~ 2020. 04. 20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고승범(高承範) 이력보기 ▼	2016. 04. 21 ~ 2020. 04. 20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신인석(辛仁錫) 이력보기 ▼	2016. 04. 21 ~ 2020. 04. 20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윤면식(尹勉植) 이력보기 ▼	2017. 08. 21 ~ 2020. 08. 20	한국은행 부총재(당연직)	한국은행법 제13조
위원	임지원(林知鴛) 이력보기 ▼	2018. 05. 17 ~ 2022. 05. 12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법 제13조

*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은행 이해를 위한 포인트-재무제표

2018년도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

제69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68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백만원)

과목	2018 말	2017 말
자 산		
I. 유동자산	475,641,067	451,370,624
1. 현금	1	2
2. 지급은	5,361,015	5,137,100
3. 특별인출권보유	3,831,293	3,615,181
4. 유가증권(주식 2)	381,273,389	340,871,922
가. 국채	16,680,720	14,831,614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64,592,669	326,040,308
5. 예치금(주식 3)	19,474,229	23,841,632
가. 당좌예치금	14,676,704	13,348,877
나. 정기에치금	4,797,525	10,492,755

유동자산
500조 원 대

한국은행 이해를 위한 포인트-재무제표

(2) 손익계산서

제6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백만원)

과목	2018	2017
I. 영업수익	13,788,850	12,242,525
1. 수입이자와 할인료	9,177,510	8,225,834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7,707,564	6,645,749
(2) 예치금이자	240,841	166,403
(3) 당좌대출이자	70	65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107,026	119,323
(6) 증권대출이자	1	45
(7) 자금조정대출이자	75	68

영업수익
13조 원 대

한국은행 이해를 위한 포인트-재무제표

(3) 자본변동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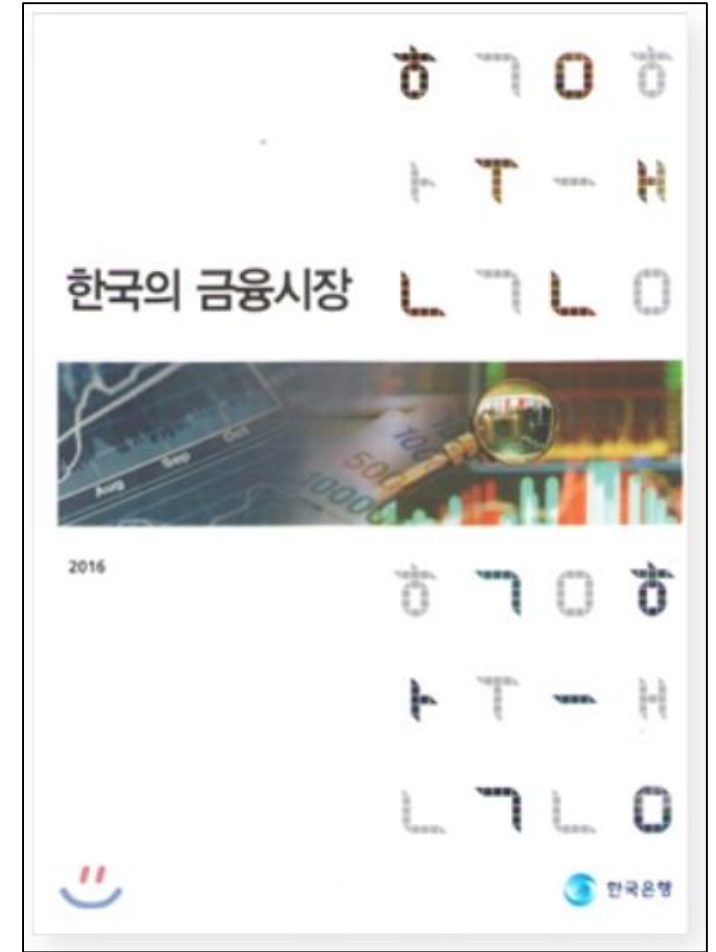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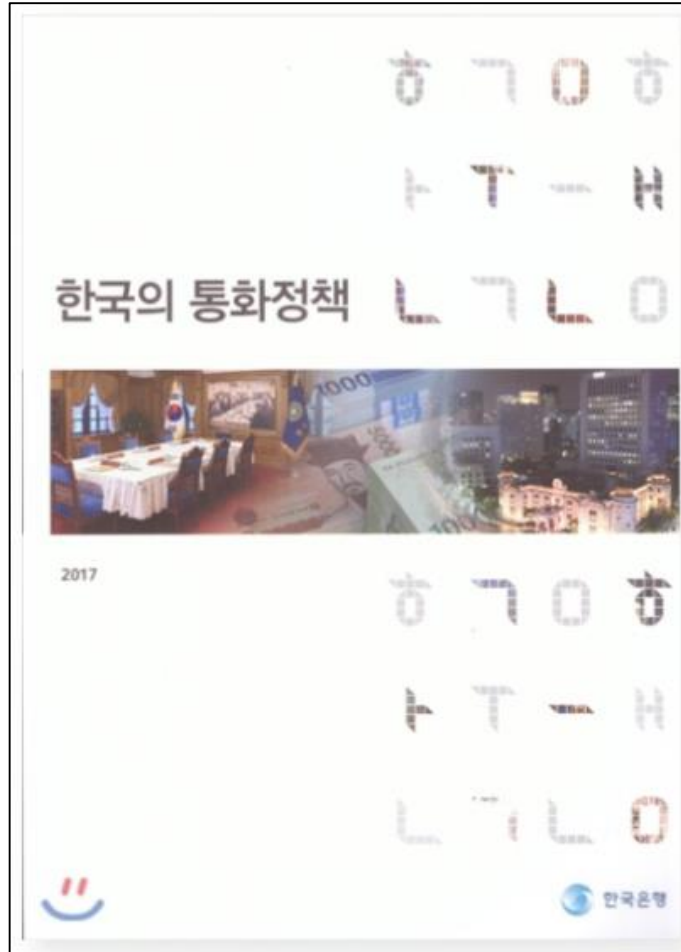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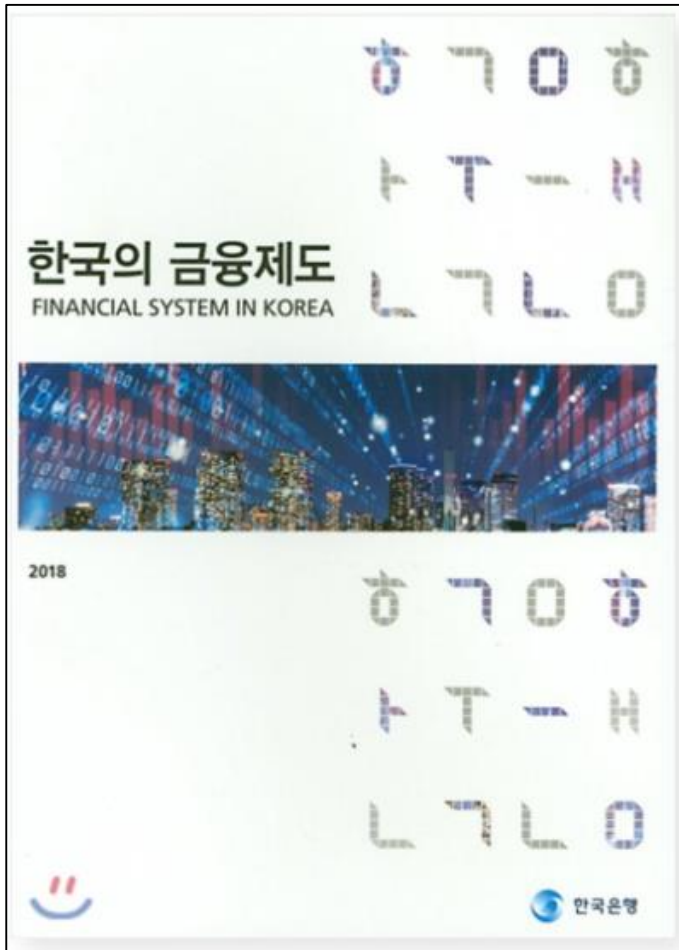
제69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백만원)

구 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17년 1월 1일(전기초)	-	13,422,700	13,422,700
II. 정부세입 납부		-2,322,970	-2,322,970
III. 농어가기금 출연		-41,542	-41,542
IV. 당기순이익		3,964,048	3,964,048
V. 2017년 12월 31일(전기말)	-	15,022,235	15,022,235
VI. 2018년 1월 1일(당기초)	-	15,022,235	15,022,235
VII. 정부세입 납부		-2,733,367	-2,733,367
VIII. 농어가기금 출연		-41,467	-41,467
IX. 당기순이익		3,213,712	3,213,712
X.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	15,461,113	15,461,113

당기순이익
3조원 대

한국은행 이해를 위한 참고도서 자료



2019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2019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업 무 현 황

2019. 10.

한 국 은 행

2019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 차 례 —

I. 일반현황 1

II.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4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1. 통화신용정책 운영
2.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3.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조기경보
4.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5. 조사연구 강화 및 경제통계 확충
6.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7. 화폐수급의 원활화 도모
8.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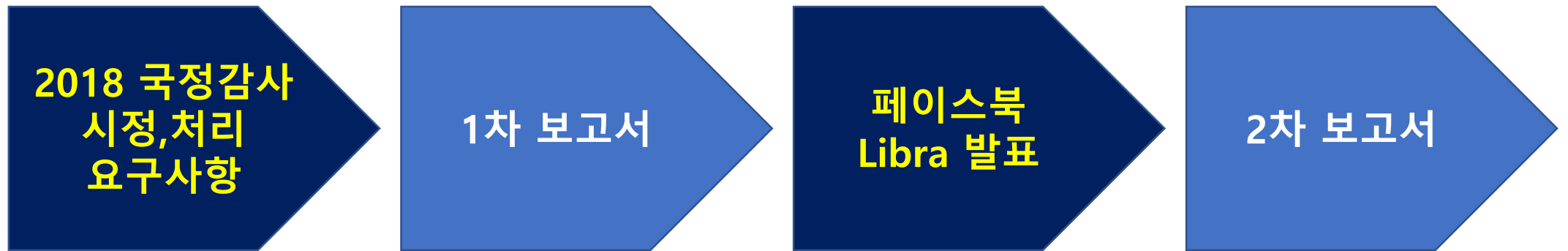
<참 고>

1. 2018년도 및 201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 2018년도 및 201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2019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10.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 연구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선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암호자산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행내 TF를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19.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특성, 구현방식,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적 쟁점 등을 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발간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전개 흐름



한국은행의 CBDC 1차 보고서 (2019.01)



한국은행의 CBDC 1차 보고서 (2019.01) – 목차 앞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의 발전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체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CBDC 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내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CBDC 1차 보고서 (2019.01)



<요 약>

I. CBDC 논의 배경	1
II. CBDC의 개념	4
1. CBDC의 정의	4
2. CBDC의 특성	8
III. CBDC 구현방식	11
1.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11
2.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21

한국은행의 CBDC 1차 보고서 (2019.01)

Ⅲ. CBDC 구현방식	11
1.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11
2.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21
Ⅳ.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27
1. 지급결제	27
2. 통화정책	33
3. 금융안정	41
4. 발 권	49
Ⅴ. CBDC 관련 법적 이슈	55
1. 한국은행법	55
2. 금융관련 법규	66
3. 그 밖의 법규	71
Ⅵ. 시사점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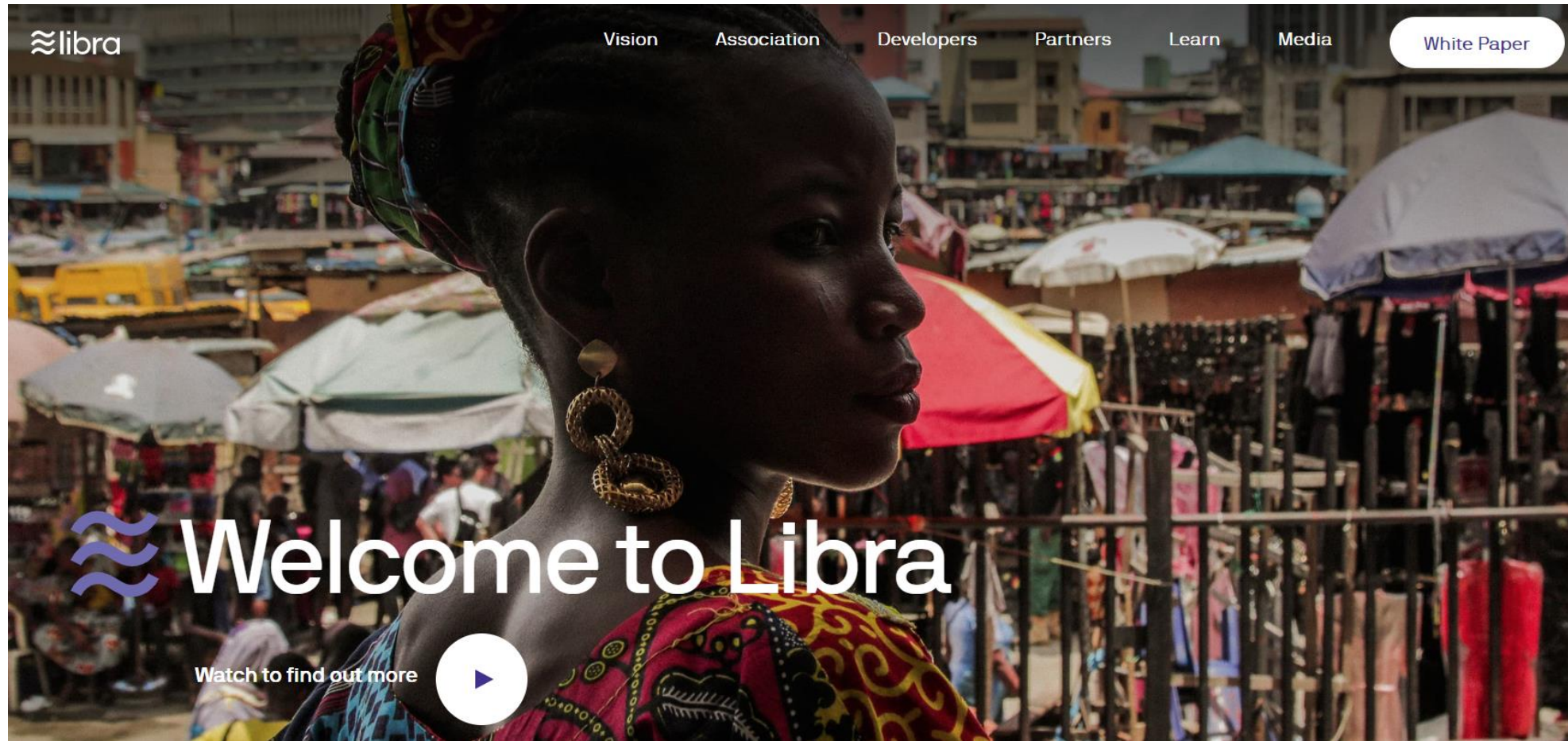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CBDC 1차 보고서 (2019.01)

<참 고>

1.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	2
2. 중앙은행의 민간(개인·기업)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 및 최근의 논의	6
3. 현금(cash)의 특성	10
4.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결제완결성	15
5. 하드웨어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방식	16
6. 구현방식 평가	17
7. 이자지급에 따른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대체 관계	38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39
9. 은행의 시장성 수신과 대출의 경기순응성간 관계	43
10. 현금·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	51
11. 스웨덴의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사례	54

<참고 문헌>	78
---------------	----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2019.06)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중앙銀 가상화폐 발행 촉발하나

中인민은행·日일본은행 등 발행 적극 검토

2019-07-09 15:39:18

[세계파이낸스=임정빈 선임기자]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기로 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제각각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중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이 지난달 리브라 발행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왔으며 중국 자체의 CBDC 발행 및 그와 관련한 인프라구축을 시사했다.

외신에 따르면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와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8일 리브라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CBDC 발행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http://www.segyefn.com/newsView/20190709002749?OutUrl=naver#0BhL>

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김세진 기자 | 입력 : 2019.07.08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증권저널 보도에 따르면 왕썬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결정으로 민간기업과 각국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민간기업의 화폐 발행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의장은 최근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596/>

리브라 날갯짓에 각국 정부 '흔들'...CBDC 줄발행 나서나

CBDC 매력 포인트 "무현금과 통제 보장"

이미 수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IBM블록체인월드와이어(IBM)와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은 합동 보고서를 통해 포럼 소속 중앙은행 및 세계 금융기관 21곳 중 38%가 적극적으로 CBDC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스웨덴, 우루과이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JP모건 등 대기업들은 잇따라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업계에서는 이들이 방대한 사용자 수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상용화를 실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소매은행 컨설팅업체 알비알(RBR)은 201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CBDC 도입을 발표한 중국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구축한 무현금·모바일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CBDC를 상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서다.**

현재 미국,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중앙은행(FED) 코인, 이크로나(E-krona), 캐드(CAD) 코인, 유빈(Ubi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CBDC가 실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23420/>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Libra 언급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 7월 12일 

...and International. We have only one real currency in the USA, and it is stronger than ever, both dependable and reliable. It is by far the most dominant currency anywhere in the World, and it will always stay that way. It is called the United States Dollar!

 5,649  10,892  50,441

[이 스레드 보기](#)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 7월 12일 

....Similarly, Facebook Libra's "virtual currency" will have little standing or dependability. If Facebook and other companies want to become a bank, they must seek a new Banking Charter and become subject to all Banking Regulations, just like other Banks, both National...

 1,803  10,952  46,677

[이 스레드 보기](#)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 7월 12일 

I am not a fan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which are not money, and whose value is highly volatile and based on thin air. Unregulated Crypto Assets can facilitate unlawful behavior, including drug trade and other illegal activity....

 19,951  19,241  71,966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2020. 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I. 검토배경	1
II.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3
1. 거액결제용 CBDC 중심	5
2. 소액결제용 CBDC 중심	8
3. 발행계획 없음	11
III. 종합평가	12
〈별 첨〉 국가별* CBDC 대응 현황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이 목차에 담긴
의도는?

<별첨>

국가별 CBDC 대응 현황 (2020년 1월 기준)

【거액결제용 CBDC 중심】

1. 캐나다		1
2. 싱가포르		2
3. 프랑스		3
4. 스위스		4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이 목차에 담긴
의도는?

【소액결제용 CBDC 중심】

5. 우루과이	5
6. 바하마	6
7. 캄보디아	7
8. 에콰도르	8
9. 중국	9
10. 터키	11
11. 스웨덴	12
12. 유럽연합	14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이 목차에 담긴
의도는?

【발행계획 없음】

13. 미국	15
14. 영국	16
15. 일본	17
16. 호주	18
17. 러시아	19

한국은행의 CBDC 2차 보고서 (2020.02)

일관된 기초

□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으나**,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 한국은행은 그동안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17.9~'18.1월), 소액결제 모의테스트(2018.9~12월)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중에 있음

○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중인 CBDC의 **세부사항들**(설계방식,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들(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II CBDC의 정의 및 특성

□ (정의)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함

■ 기존 지준예치금(reserves)도 그 형태상 CBDC와 유사하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앙은행이 새로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CBDC로 정의[#]

[#] "A CBDC is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BIS(2018.3),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 가능

□ (특성)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①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② **이자 지급** ③ **보유한도 설정** ④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함

⇒ 본고에서는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발행시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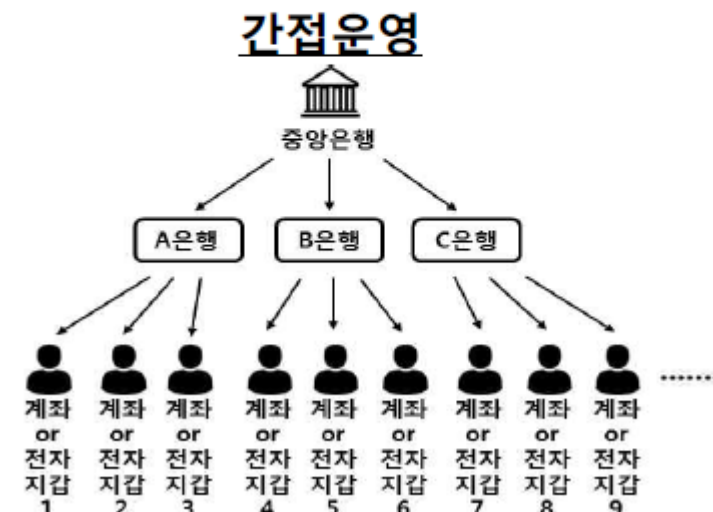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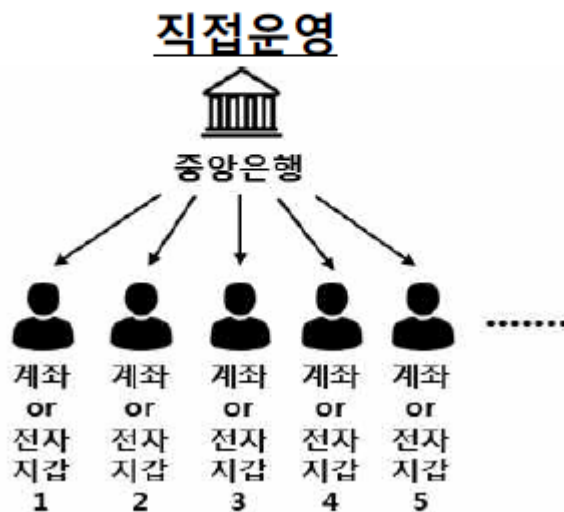
- **거액결제용**
-> **도매결제** 혹은 **은행결제용(wholesale only)**이 명확한 표현
- **소액결제용**
-> **일반결제용** 혹은 **소매결제용(General-purpose)**이 명확한 표현

Ⅲ CBDC 구현방식

1 구현방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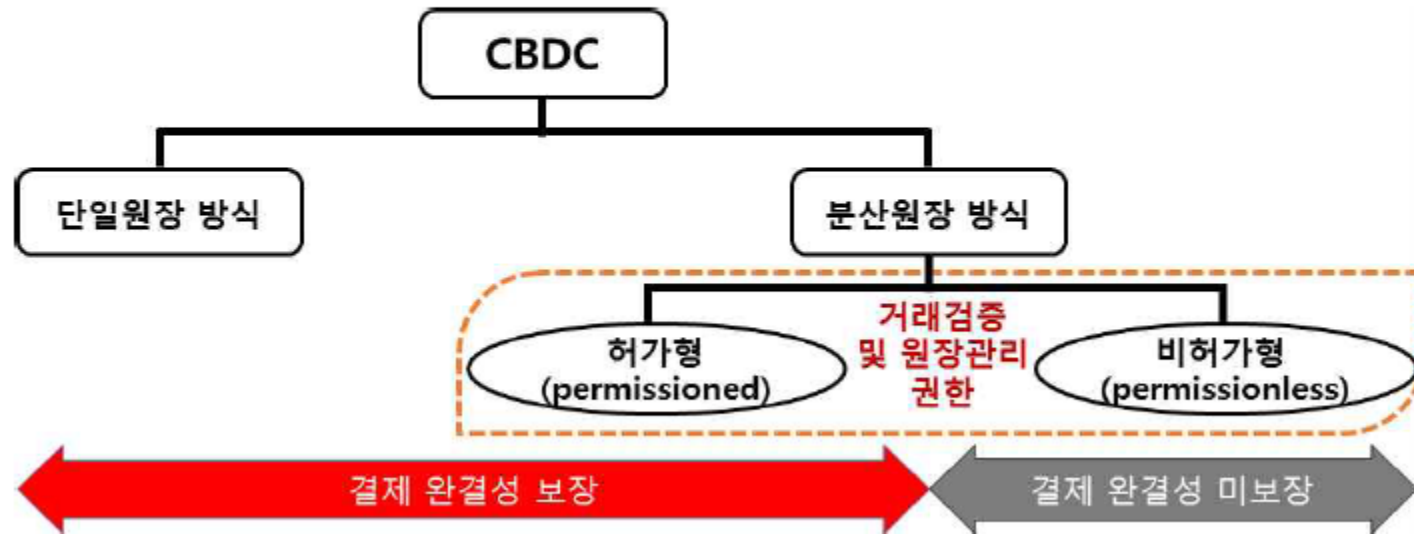
- CBDC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거래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다시 분류 가능
- CBDC도 현금과 같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가 사후에 취소될 소지가 없는 **단일원장방식**이나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이 보다 적합[■]

- 각각의 방식은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Programmable Money 코딩의 디지털 차원에서는
- 직접운영/간접운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정당한 거래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록한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더라도, 이후 주(main)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제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려움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중앙화
유인 증가

중앙화
유인 증가

□ (CBDC 시스템의 안전성) 은행예금을 통한 지급시 은행간 청산·결제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만 CBDC를 통한 지급의 경우 지급과 동시에 중앙은행(단일원장방식) 또는 복수의 원장관리기관(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신용리스크는 없음**

— 다만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현재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함에 따라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BDC 시스템의 효율성) CBDC 도입시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급지시 **처리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현재도 **은행계좌 기반 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로 즉시 지급되고 있어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만,

CBDC가 **공급량 조절**(helicopter money)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금리조절·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CBDC 발행시 CBDC와 은행예금간 빈번한 자금이동 등으로 **지준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개시장운영시 이에 유념할 필요

□ (CBDC에 대한 이자지급시) CBDC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benchmark)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에는 경제주체의 **현금보유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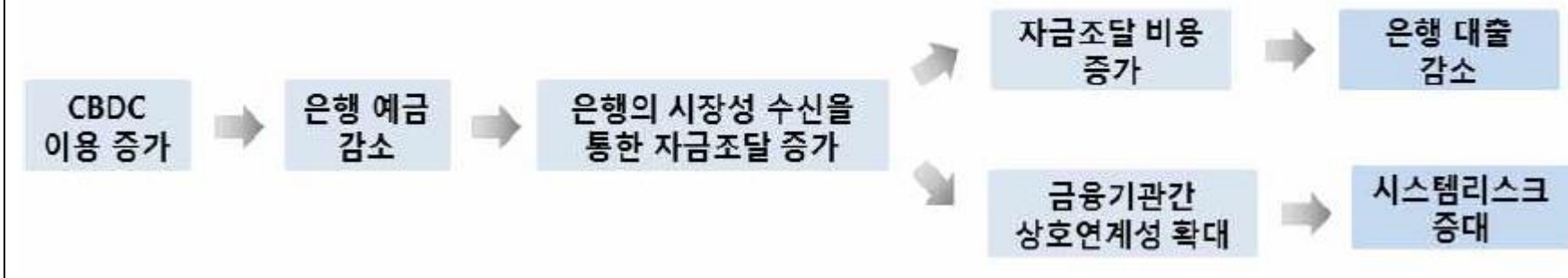
중앙화
유인 증가

중앙화
유인 증가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 및 이에 대응한 시장성 수신 증가가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시중은행 기능
약화 인정

CBDC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영향



□ (외환부문)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CBDC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P2P(Peer-to-Peer) 방식에 의한 거래당사자간 CBDC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금융불안시 CBDC의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져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기타) CBDC 도입은 개인·기업에게 조건 없이 계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융포용²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다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하여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
증가

중앙화
유인 증가

- (현금 등의 수요) CBDC에 대한 수요는 CBDC의 사용 편의성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의 익명성, 이용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의 발권업무) CBDC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현금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유통 관련 업무도 축소되어 화폐의 제조 및 유통비용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화폐유통시스템) 금융기관들의 현금취급 축소 등으로 화폐유통체계와 CD/ATM·정사기기 제조 등과 관련한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중앙화
유인 증가

□ CBDC 도입시 법화성 및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함

— 특히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직접운영시) 한국은행과 민간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간접운영시)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CBDC 관련 대고객 업무를 은행 등 제3자에게 위임하고, CBDC 발행액만큼 한국은행에 CBDC준비금을 예치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 CBDC를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구축·운영할 경우 CBDC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CBDC 및 한국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CBDC 발행은 은행업무 및 건전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은행법」 등 감독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CBDC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개인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이 한국은행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분산원장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갑**, **거래 검증기관**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법률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한편,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

—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

국가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함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구 분	현금이용 축소		화폐제조·유통비용 절감	금융포용 제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민간독점 방지	운영리스크 대비		
ECCB ¹⁾		✓	✓	✓
에콰도르			✓	
노르웨이	✓			
스웨덴	✓	✓		
튀니지				✓
우루과이			✓	✓

주 : 1) 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동 카리브해 중앙은행)
 자료 : IMF(2018.11), 「Casting Light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기축통화국 입장이 누락된 아쉬움

시야의 확대

디지털 혁명 전체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Nick Szabo : 스마트콘트랙트 제안자



닉 사보 (Nick Szabo)

- **스마트컨트랙트**는 1994년 암호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닉 사보(Nick Szabo)가 최초 제안한 개념
- 가상화폐 '**비트골드**'(bitgold)의 창시자
- 비트코인의 개념 정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코드를 통해 스스로 실행되게 하는 전산화된 거래 약속이다”

스마트 계약 설계의 기본 원칙 4가지 제시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사생활 보호(Privacy)

강제 가능성(Enforceability)

The God Protocols

Nick Sz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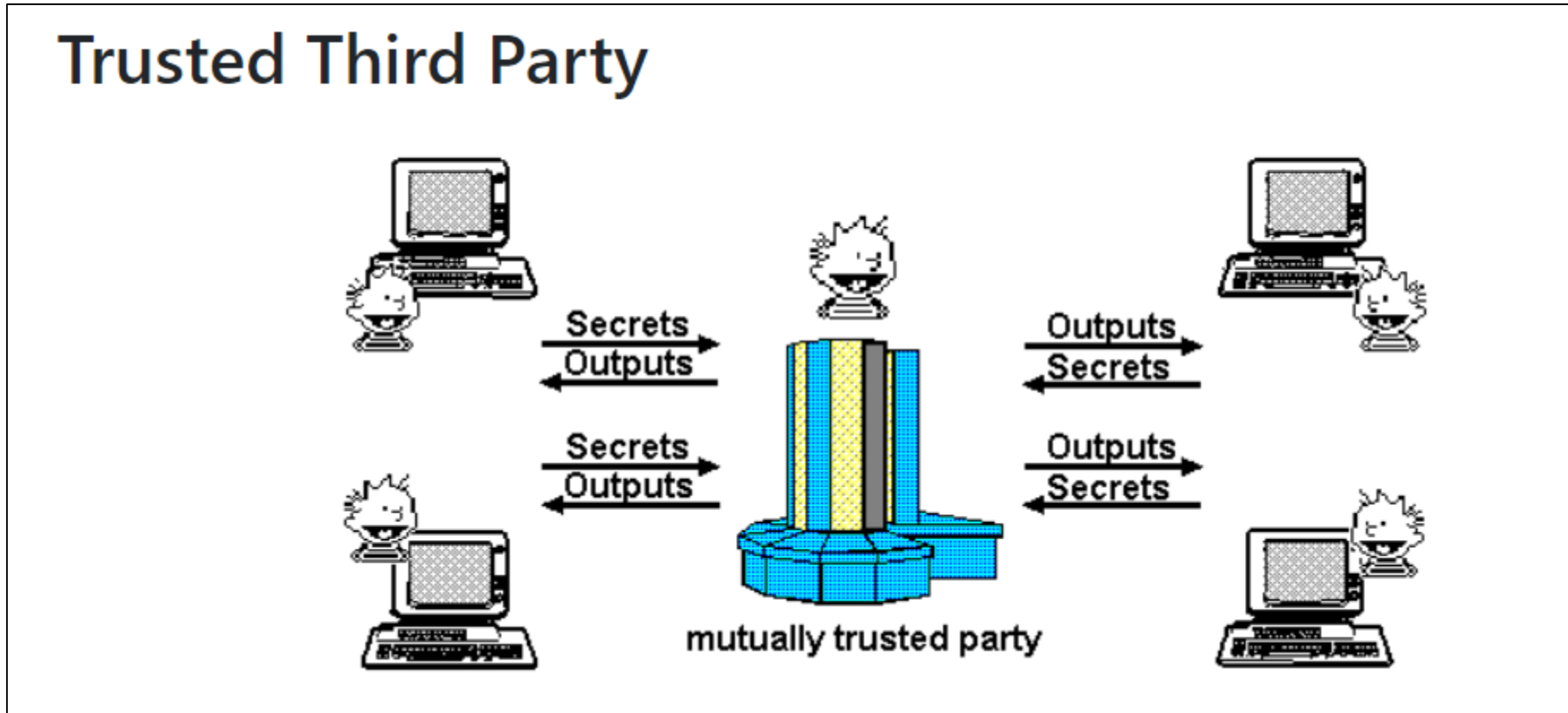
Originally published in 1997

Imagine the ideal protocol. It would have the most trustworthy third party imaginable – a deity who is on *everybody's* side. All the parties would send their inputs to God. God would reliably determine the results and return the outputs. God being the ultimate in confessional discretion, no party would learn anything more about the other parties' inputs than they could learn from their own inputs and the output.

Alas, in the our temporal world we deal with humans rather than deities. Yet, too often we are forced to treat people in a nearly theological manner, because our infrastructure lacks the security needed to protect ourselves.

The God Protocol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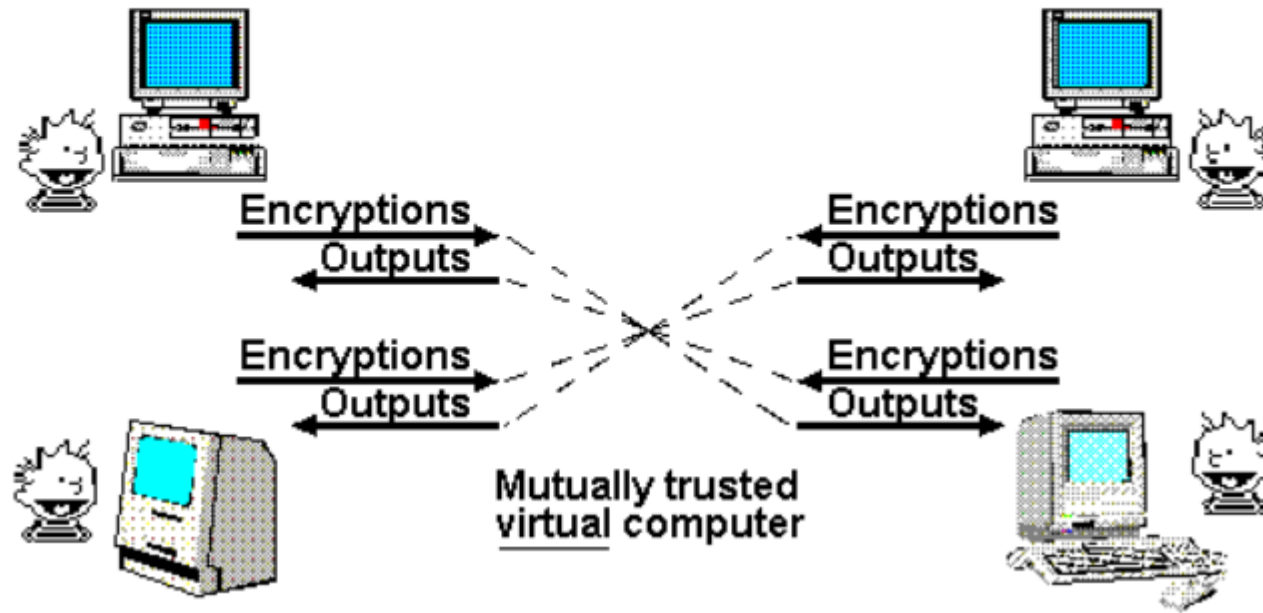


- 신뢰 검증 기관이 신뢰를 저해한다는 소신

The God Protocol

<https://nakamotoinstitute.org/the-god-protocols/>

Mathematically Trustworthy Protoc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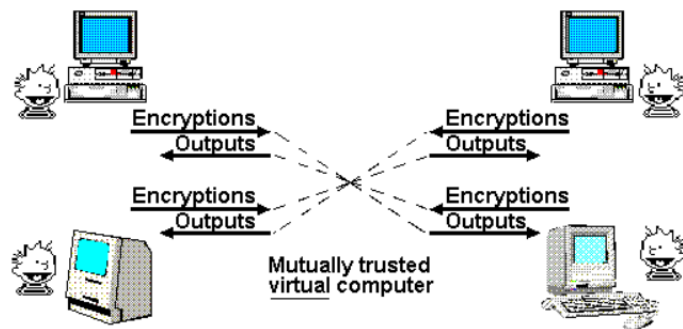


- 완벽히 탈중앙화 상태를 God Protocol 이라 비유
- God Protocol를 컴퓨터 기술로 구현하고자 함

비교 시사점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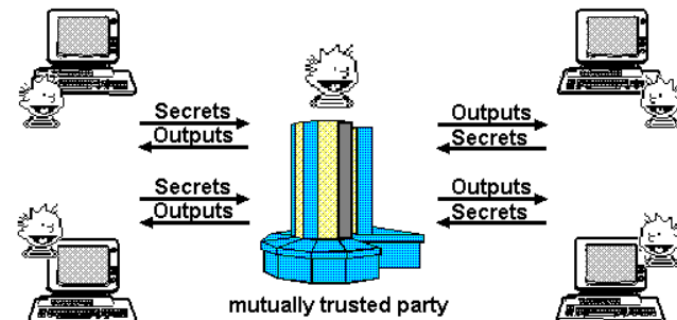
Mathematically Trustworthy Protocol



- 중앙권력을 제거하려는 것이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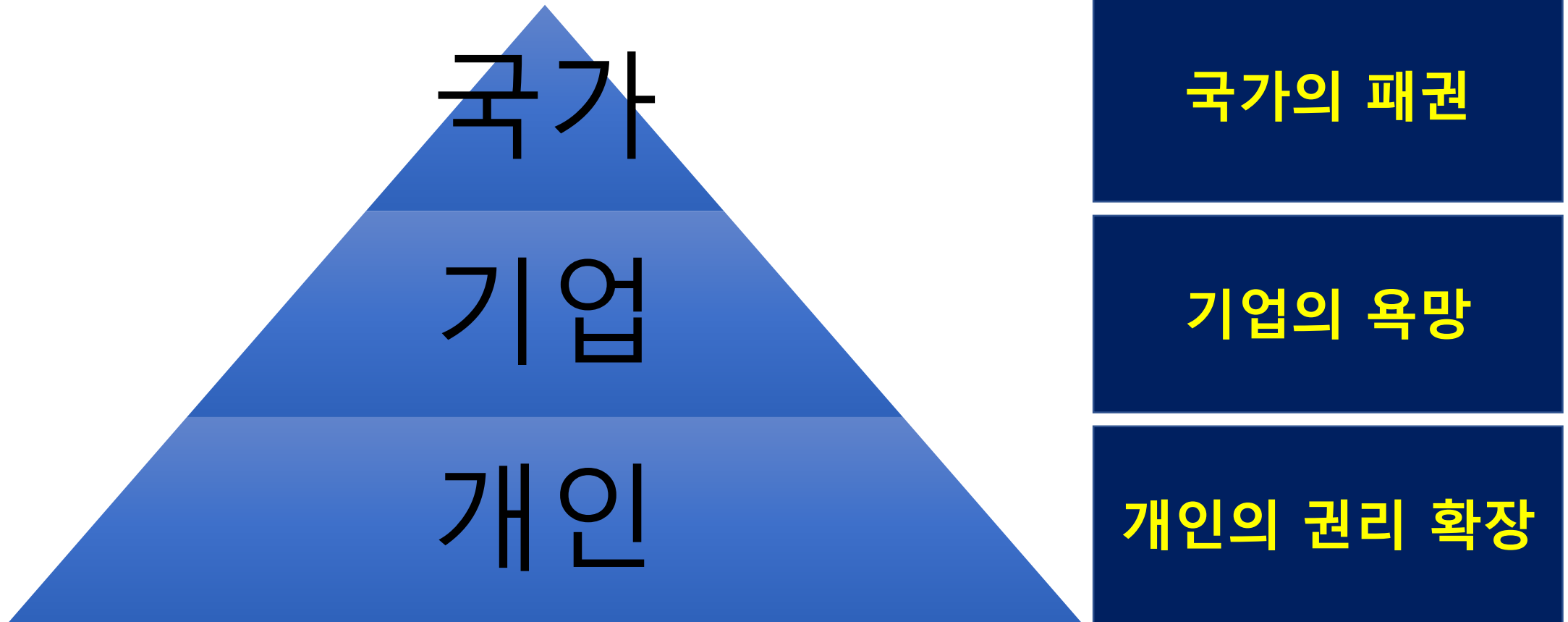
CBDC

Trusted Third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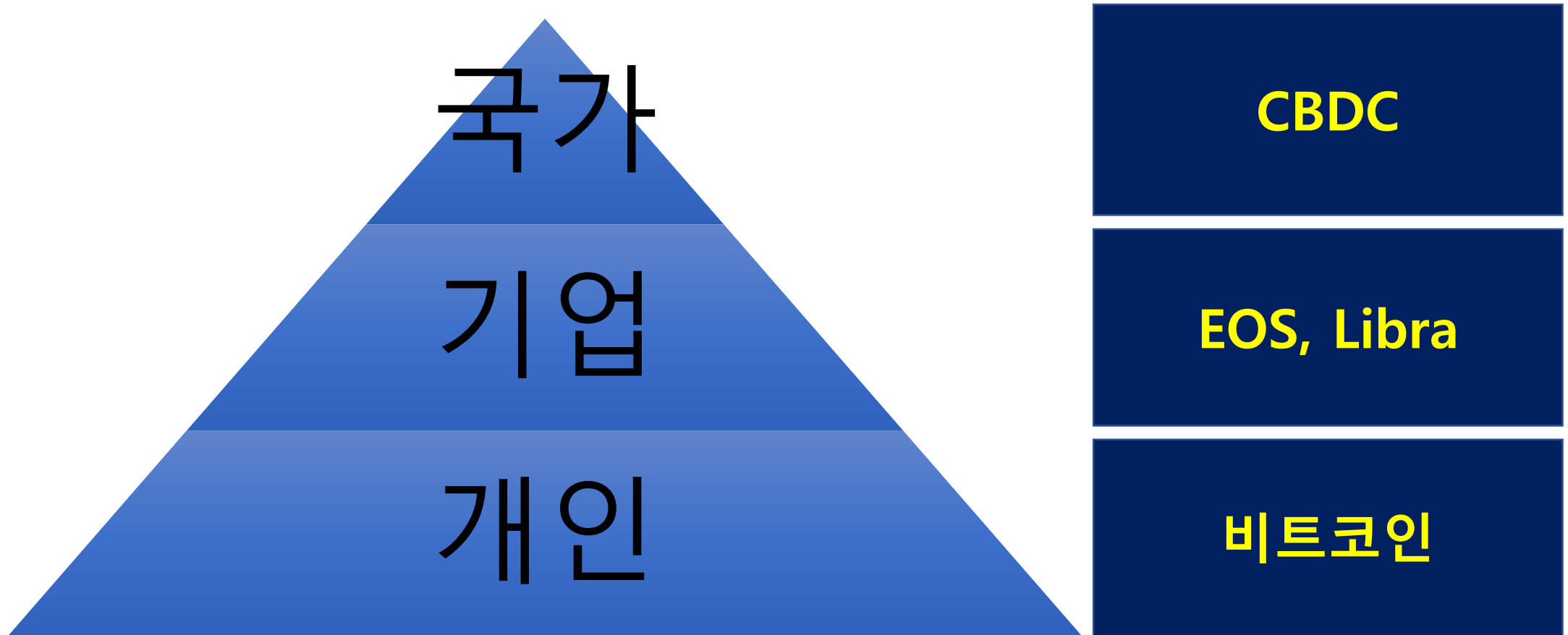


-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넘어
- End User가 직거래 확대가 본질

크립토 전쟁의 본질 (2019.7 강의록)



크립토 전쟁의 본질 (2019.7 강의록)



크립토 전쟁의 본질 (2019.7 강의록)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기축통화 미보유국의 한계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윤덕룡
김소영
이진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축통화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연구의 필요성

통화정책과 환율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국가를 대국개방경제와 소국개방경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분석들과 같이 규모에 따른 국가 분류는 가격 설정력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대국개방경제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설정자가 되고 소국개방경제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수용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국가를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환율의 움직임은 국가가 대국인지, 소국인지보다 기축통화국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국개방경제이지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위험확대 기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의 행태가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다음으로 통화의 신뢰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이

기축통화 미보유국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관심을 끈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장기금리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율의 평가절하로 경기회복에 대내외적 자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들에서만 누릴 수 있었고 비기축통화국들은 통화의 유통범위가 국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소국개방경제국들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환율제도까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한 국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탓으로 양적완화가 초래한 환율의 평가절하에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변동하는 경우 비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 영향이 압도되어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축통화 미보유국의 한계

소국개방경제국들 중에는 경제발전 정도 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혼재되어 있지만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보면 자국통화가 기축통화인지의 여부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정책이 통용되는 범위가 달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미보유국의 한계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이지만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았고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축통화국들과 달리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환율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과의 관계가 기축통화국들과 실제로 다른지의 여부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가 가진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정책적 효용성을

세계 외환시장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

표 2-2. 세계 외환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¹⁾ 추이

(단위: %)

순위	통화	2004	2007	2010	2013	2016
1	미국 달러화	88.0	85.6	84.9	87.0	87.6
2	유로화	37.4	37.0	39.1	33.4	31.3
3	일본 엔화	20.8	17.2	19.0	23.1	21.6
4	영국 파운드화	16.5	14.9	12.9	11.8	12.8
5	호주 달러화	6.0	6.6	7.6	8.6	6.9
6	캐나다 달러화	4.2	4.3	5.3	4.6	5.1
7	스위스 프랑화	6.0	6.8	6.3	5.2	4.8
8	중국 위안화	0.1	0.5	0.9	2.2	4.0
9	스웨덴 크로나화	2.2	2.7	2.2	1.8	2.2
10	멕시코 페소화	1.1	1.3	1.3	2.5	2.2
11	뉴질랜드 달러화	1.1	1.9	1.6	2.0	2.1
12위의 오타로 추정	15	싱가포르 달러화	0.9	1.2	1.4	1.8

세계 외환시장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

표 2-2. 계속

순위	통화	2004	2007	2010	2013	2016
13	홍콩 달러화	1.8	2.7	2.4	1.4	1.7
14	노르웨이 크로네화	1.4	2.1	1.3	1.4	1.7
15	한국 원화	1.1	1.2	1.5	1.2	1.6
16	터키 리라화	0.1	0.2	0.7	1.3	1.4
17	인도 루피화	0.3	0.7	1.0	1.0	1.1
18	러시아 루블화	0.6	0.7	0.9	1.6	1.1
19	브라질 헤알화	0.3	0.4	0.7	1.1	1.0
20	남아공 랜드화	0.7	0.9	0.7	1.1	1.0
	기타	9.4	11.1	8.3	6.3	7.0
	합계 ²⁾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1) 국내외 조사대상 금융기관간 중복거래(doble-counting) 제외, 4월 중 일평균 기준.

2) 외환거래 특성상 거래 양방의 통화를 합산함에 따라 비중의 합계가 200%로 나타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2), p. 5.

개방경제 규모별 기축통화 보유 여부

표 2-3. 개방경제 규모별 기축통화 보유 여부

	대국개방경제	소국개방경제
기축통화 보유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기축통화 미보유	중국	한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 한국은 소국개방경제 중에서
- 경제역량은 좋지만 유일하게 기축통화 미보유 상태

연구 결과

국제통화 보유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국제통화 비보유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

연구 결과

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제통화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통화정책 충격 후 환율의 동태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달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하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론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을 환율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며 통화정책적 충격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동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기축 통화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율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기축통화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적 시사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자유화 수준은 기축통화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⁸⁾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과 관련된 다른 제도들은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통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화의 국제화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국제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우리 통화에 대

정책적 시사점

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야 통화의 국제화가 성공할 수 있다. 통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화 국제화를 위한 국가의 비전수립과 로드맵 작성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현실화 방안이 있어야 가능하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왔다. 국가적 정책과제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화의 국제화 없이는 개방화 수준이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많다.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정책적 방안들에 대하여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들이 일깨워주고 있다.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 1) 원화 국제화가 무엇인가?
- 2) 국제화가 되지 못한 원인
- 3) 통화 국제화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 4)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1986-2002)
- 5)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2003-2005)
- 6) 원화 국제화 달성 가능성 진단(2012)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신 승 관^{*1)}

I. 서 론

통화의 국제화란 해당국 내에서 유통되던 통화가 역외에서 사용,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거래가 빈번하면 거래상대방은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나라의 통화는 국제통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화의 국제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자들이 국제적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국민적 통화를 이용함과 동시에 자국통화표시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⁴⁾ 다시 말해서 해당국내에서만 유통되던 통화가 국제적으로 사용, 보유되는 정도를 말한다.⁵⁾

국제통화는 국민적 통화와 마찬가지로 화폐로서의 세 가지 기능, 즉 가치척도로서의 기능과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통화로서의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우리 나라 원화에 대해 정의해 보자. 먼저 국제거래에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화가 각국간의 경상거래 또는 자본거래에서 가격의 표시나 금액의 계산단위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둘째, 국제거래에서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화가 국제간의 경상거래 또는 자본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셋째, 국제적으로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화가 외국의 민간부문이나 정부와 같은 공적기관에서 대외준비자산로 보유되거나 국제채권발행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어려운 점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첫째, 원화의 대출이 극히 제한적이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2항 4호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국내 비거주자(국내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국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 영사관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자 등은 제외)에게 원화자금 대출을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지급수단의 수출입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동규정 제6-2조 1항 1호(수입)와 제6-2조 1항 5호(수출)을 보면 지급수단등(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해외지점·현지법인간,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의 외국환은행간의 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자유로운 해외 반출과 반입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수입의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지점·현지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수입하는 경우 한도상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화 휴대수출입도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어려운 점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셋째,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원화대금의 취득 및 지급 제한하고 있어 원화의 역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5항 2호(취득)와 제 7-9조 5항 2호(지급)를 보면 비거주자(외국 금융기관 포함)와 거주자간의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원화대금의 취득 또는 지급시 이의 방법은 계좌간 이체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원화의 취득이나 지급을 계좌간 이체방식으로 제한함에 따라 결국 해외에서의 원화를 인출하여 자유롭게 사용,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동 규정 6장에 의해 지급수단(현금으로서의 원화)의 수출입이 1만불 상당액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어려운 점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넷째, 자본거래측면에서도 원화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 2의 1항(1년이상 차입)과 동규정 제7-15조의 2의 2항(1년 이하 차입)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차입 제한이 1년 이하의 경우 원화자금의 차입(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 이상의 원화자금차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이것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차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차입 또한 국내에 개설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국한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원화의 차입은 불가능하다. 원화증권 발행도 제한되어 있다.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을 보면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

원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어려운 점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표 1> 우리나라 무역거래시 결제통화 비교(2000년)

(%)

	미 달러화	엔화	파운드화	마르크	기타외화
수출	84.8	5.4	0.7	1.8	11.1
수입	80.4	12.4	0.8	1.9	8.7

자 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자본거래와 외환보유고 측면에서도 원화의 사용이나 보유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 자본거래가 무역거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통화국제화는 무역거래보다는 자본거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부실하고 세계시장에서 무역거래에 비해 자본거래가 크게 미흡하여 자본거래에서의 원화사용은 무역거래에 비해 더욱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어려운 점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표 2> 전세계 자본거래 · 외환보유고 통화구성 비교(2000년말)

(%)

	외환거래	주식투자	은행여신	채권발행	외환보유고
미 달러화	45.2	50.0	42.2	46.0	69.0
유로화	18.8	25.0	27.4	36.7	11.4
엔 화	11.4	11.0	7.0	7.9	5.0
기타통화	24.7	14.0	23.4	9.4	1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료 : BIS, IMF

통화 국제화의 기본 요건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통화의 범용성

통화의 신인도

통화의 편리성

금융, 자본시장
발달

외환거래제도가
개방적

Tavlas and Ozeki(1992)는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통화의 **범용성이다.** 일국의 국민적 통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무역 및 직접투자 등 국제실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교역상대국은 결제편의를 위해 해당 국가의 통화에 대한 보유 동기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둘째, 통화의 신인도가 있어야 한다. 즉 국제통화로서의 가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나라 통화의 구매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그 나라의 통화의 대외가치가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통화를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하기를 꺼릴 것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발생뿐만 아니라 물가가 때로는 치솟고 때로는 하락하는 등 물가의 변동이 심해도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물가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외환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그 나라 통화의 구매력이 불안정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보유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통화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통화에 대한 교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비거주자가 보유한 일국의 국민적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 즉 외화로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충분한 대외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외준비자산의 축적은 경상수지 흑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금융,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한다. 이것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간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건이기도 하다. 즉 비거주자가 국제거래를 위해 일국의 국민적 통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 그 나라의 국민적 통화가 국제적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촉진될 것이고 또한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도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 외환거래제도가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통화의 편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일국의 통화가 외화와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사용주체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또는 사용범위인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적어도 비거주자가 경상거래에 의하여 취득, 보유하는 일국의 국민적 통화에 대해서는 교환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부록 1> 우리나라 원화국제화 조치내용

조치일자	내 용
1986. 1. 1	- 국내외국환은행 국외점포에서의 비거주자용 원화여행자수표 발행 허용(1인당 3백만원 이내) - 국내외국환은행 국외점포에서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대가 원화매입 허용
1986. 4.12	- 비거주자용 원화 여행자수표 발행한도 폐지 (중전 1인당 3백만원) - 국내외국환은행에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대가 원화매입 허용 (한도: 국내외국환은행 국외점포에서 비거주자가 원화여행자수표를 매입한 범위내)
1986. 6. 1	- 국내외국환은행에서의 비거주자용 원화여행자수표 발행 허용
1988. 3.25	- 2백만원 이내의 원화 휴대수출입 허용
1988. 3.28	- 비거주자용 원화여행자수표 발행한도 제한(1인당 1천만원)
1988. 9. 1	- 비거주자용 원화여행자수표 발행한도 축소(1인당 5백만원)
1988. 11. 1	- 원화표시 수출입거래 계약 허용(결제는 외화로)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1991. 9. 2	- 원화표시 무역외거래 계약 허용(결제는 외화로)
1992. 9. 2	- 원화표시 자본거래 계약 허용(결제는 외화로): 모든 거래에 대한 원화표시 허용
1993. 10. 1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허용 · 건당 10만불이하의 수출입거래 및 재보험거래에 대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허용 · 자유원계정에치잔액을 외평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94. 6. 1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범위 확대 ·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대상거래 확대 : 수출입, 재보험거래외에 수출입관련 운임, 보험료를 포함 - 원화결제허용 범위 확대 · 수출입거래대금 : 10만달러 → 30만달러 · 재보험거래 : 10만달러 → 금액제한 폐지
1995. 2. 13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범위 확대 ·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대상거래 확대 : 수출입거래(수출입 관련 운임, 보험료 포함) 재보험거래 → 경상거래(증여성지 급등 이전거래 제외) * 경상거래대금 허용범위 : 30만불 - 원화휴대 수출입 한도 확대 : 2백만원 → 3백만원 - 비거주자용 원화여행자수표 발행한도 확대 · 1인당 5백만원 → 1천만원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조치일자	내 용
1996. 6. 1	- 원화휴대수출입 금액한도 확대 · 3백만원 → 8백만원(해외여행경비 1만불 상당액) - 국외점포의 원화매매 확대 ·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매입 : 3백만원 → 8백만원 ·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매입. 매각한도 폐지(종전 원화여행자 수표 1천만원, 원화 3백만원) - 국외점포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계정 개설 허용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이용범위 확대 · 경상거래대금에 대한 금액제한(30만불) 폐지 · 국민인 비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원화계정 개설 허용 · 자유원계정자금의 국내증권투자자금으로의 활용 허용(비거주자 본인명의로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허용) - 국외점포에 비거주자 대상 자유원계정 개설 허용 ·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와의 원화표시 경상거래 및 재보험거래시 동계정 이용(국내자유원계정 및 투자전용원화계정과의 이체는 불허)

원화 국제화 추진 역사

참조논문: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신승관, 2002)

1998. 7. 1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의 예치대상에 비거주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 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 추가
1999. 4. 1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대해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 허용 -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국내금전신탁 허용 - 원/달러 옵션거래 허용 -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원화증권 발행을 재경부장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비거주자간 원화표시거래를 재경부장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 비거주자의 외국소재 금융기관과 원화표시 예금거래 허용
2001. 1. 1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 만기제한 폐지 - 비거주자의 국내신탁거래 자유화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http://bit.ly/35YiU0d>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03. 12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CH I.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비전

I. 금융허브 추진의 필요성 1

II.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여건 2

III. 최적 금융허브의 형태 3

IV.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6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http://bit.ly/35YiU0d>

CHⅡ.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

- I.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8
- Ⅱ. 금융시장의 선진화 14
- Ⅲ. 지역 특화 금융수요 관련 Initiative 확보 24
- Ⅳ. 금융산업의 Global Network 강화 33
- V.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38
- Ⅵ.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44
- Ⅶ. 금융 관련 경영·생활여건 개선 51

CHⅢ. 금융허브 추진체계 및 로드맵

- I. 금융허브 추진체계 54
- Ⅱ.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56

Chapter I :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비전

I. 금융허브 추진의 필요성

□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 마련

. 기존 제조업·수출위주 산업구조로는 21C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

-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중점 육성할 필요

*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 : 한국(53.7%), 홍콩(86%), 싱가포르(68%), 일본(67%), 미국(73%), 영국(72%) - '01년 기준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2003)

<http://bit.ly/35YiU0d>

- . 금융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문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추가적 발전에 기여

"금융시장의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

- 금융시장의 '깊이'와 '폭' 확충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경제성장 촉진"

- 실물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 법률·회계 등 관련 서비스업 발전

"금융기관/전문인력 수요 증가"

- 우수 금융기관의 신규시장 진입
/ 금융부문의 고용창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규제완화, 시장개방 조치 등에
따라 추가적 수요증가 가능

- . 금융허브 구축에 실패할 경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의 진입은 물론
현재 우리경제의 위상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Ⅱ.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여건

- ◇ 주요 금융허브와의 역량을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역량으로 단기간내 글로벌 금융허브 달성은 어렵고** 아시아권 내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력 격차가 큼
- ◇ 따라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금융허브 모델을 정립**, 기존 금융허브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

- . 지역금융센터 : 홍콩, 싱가포르 등
- . 특화금융센터 : 취리히(private banking), 보스턴(자산운용), 시카고(선물시장) 등
-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작은 여건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
- . 따라서, 각국은 금융허브로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

⇒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허브 모델을 하루 빨리 정립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Action Plan**을 과감하게 실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급

2년 후 금융위원회 자료 (2005)

<참고2>

제1차 금융허브실무위원회 안건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10. 26

금융위원회 자료 (2005)

I. <u>경 위</u>	1
II. <u>그간의 추진현황</u>	2
III. <u>향후 추진계획</u>	4
1. <u>금융인프라의 개선</u>	4
2. <u>금융시장의 효율적 발전기반 구축</u>	7
3. <u>국제적 네트워크의 강화</u>	8
4. <u>금융전문인력의 양성</u>	9
5. <u>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적 제도화</u>	9

금융위원회 자료 (2005)

◆ 제1차 금융허브회의의 대통령 지시사항

- ① 금융허브 정책을 힘을 실어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제를 법적 토대에 바탕을 두고 제도화
- ②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의 금융허브 추진 체계 구성
- ③ 금융전문인력 수요파악 등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유도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금융인력네트워크 설치 추진중
- ④ 통합금융법, 원화국제화, Negative System 등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추진
- ⑤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 노력

통화 국제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현석* · 이상헌**

본 연구에서는 통화 국제화를 완전 국제화와 부분 국제화로 분류하고,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각 통화의 국제화 유형별 확률을 시산하였다. 실증 결과, 통화 국제화에 양(+)의 효과를 주는 요인은 GDP 비중과 무역 비중, 주식시장가치/GDP와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발행 비중, 그리고 금융 개방도 등이다. 반면에 무역의존도와 인플레이션은 통화 국제화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모형에서 시산된 원화의 부분 국제화 확률은 60%로 나타났다. 원화의 경우, 경제규모 측면에서 부분 국제화의 선결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외환시장의 개방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호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채권 발행 비중을 높인다면 원화의 부분 국제화 가능성은 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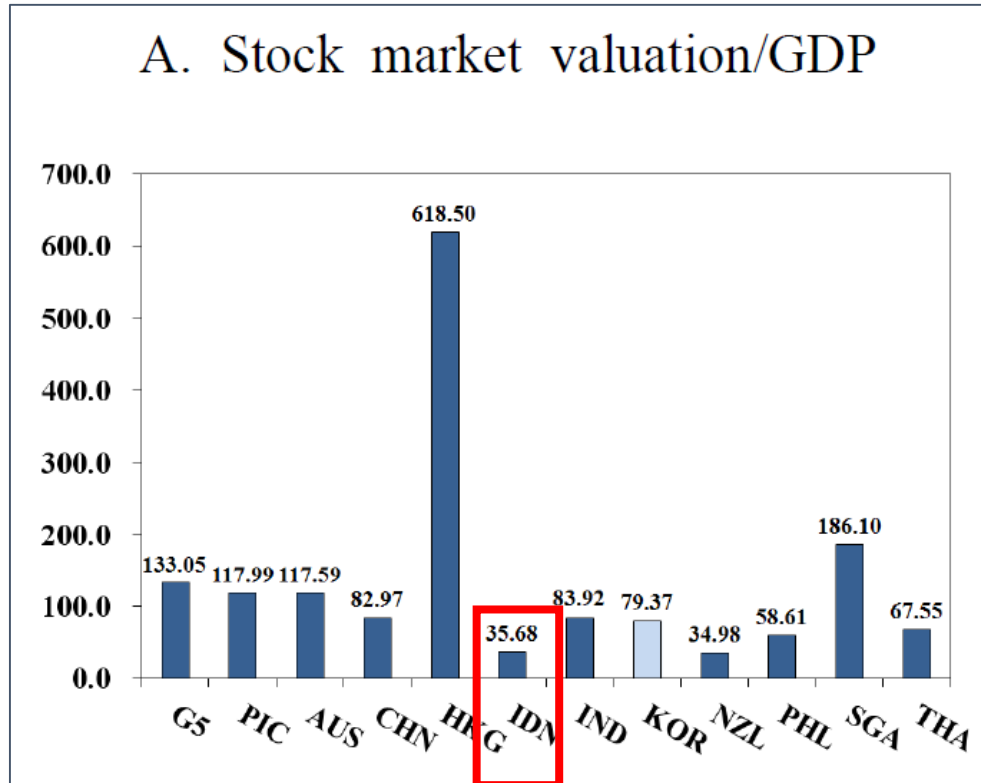
JEL Classification Number: F3

핵심 주제어: 통화 국제화, 완전 국제화, 부분 국제화, 자본시장 조건, 금융 개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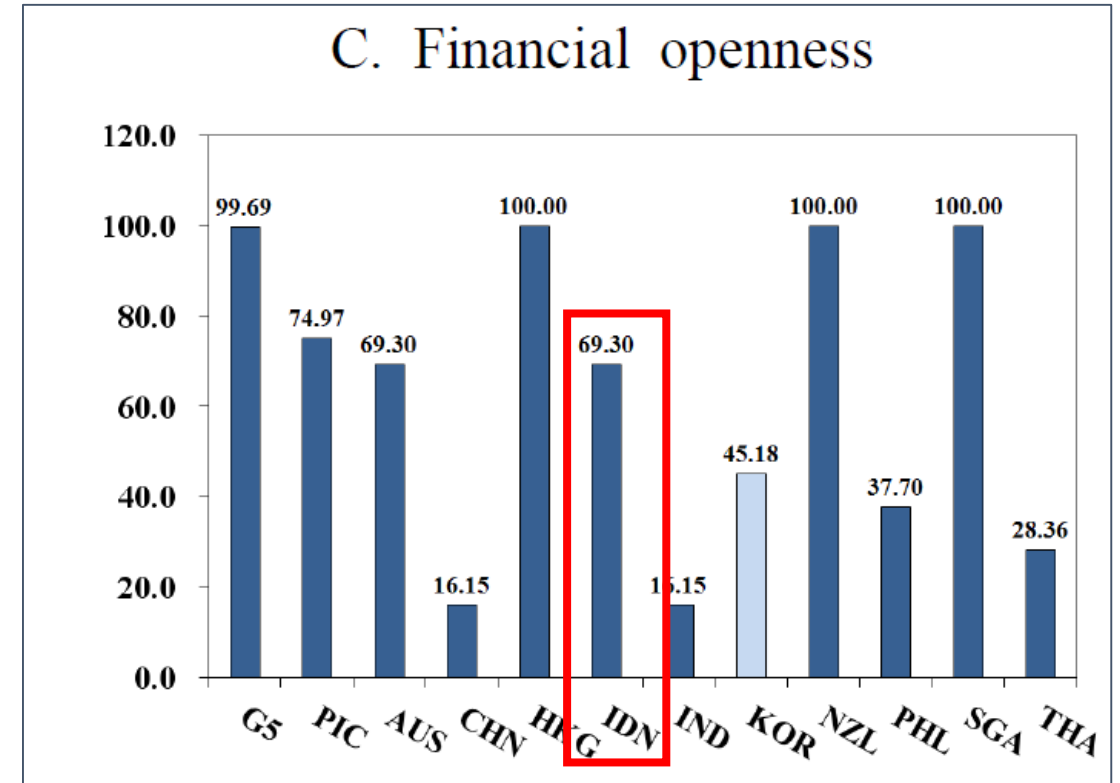
원화 국제화 달성 가능성

참조논문: 통화 국제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현석, 이상헌, 2012)

A. Stock market valuation/GDP



C. Financial openness



-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경제 규모는 크지만,
- 인도네시아보다 한국 금융 시장이 폐쇄적임

우리의 주변국을 보면 일본은 이미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고 중국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높아진 경제 위상에 비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역내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막연한 원화 국제화의 추진이 아니라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원화에 대한 지위 및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화 국제화의 논의를 재개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 원화는 경제규모 측면에서 부분 국제화의 선결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외환시장의 개방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원화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 채권시장의 국제화와 외환 자유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실증결과에서 보듯이 일국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깊고 넓은 자본시장은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IMF SDR 편입 가시권 진입(2015)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512022200465

“한국 원화, 위안화 이어 SDR 편입 유력 후보”

남지원 기자

2015.12.02 22:00 입력 ▾

가+

미 블룸버그 보고서 “수출 순위 기준으로 가능”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는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13일 작성한 자체 보고서에서 현재 SDR를 구성하는 통화 이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통화가 더 있다”고 적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IMF는 어떤 통화가 SDR 편입 가능성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수출 순위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 원화가 가장 유력하며 싱가포르 달러와 캐나다 달러가 그 뒤를 잇는다”고 보도했다.

강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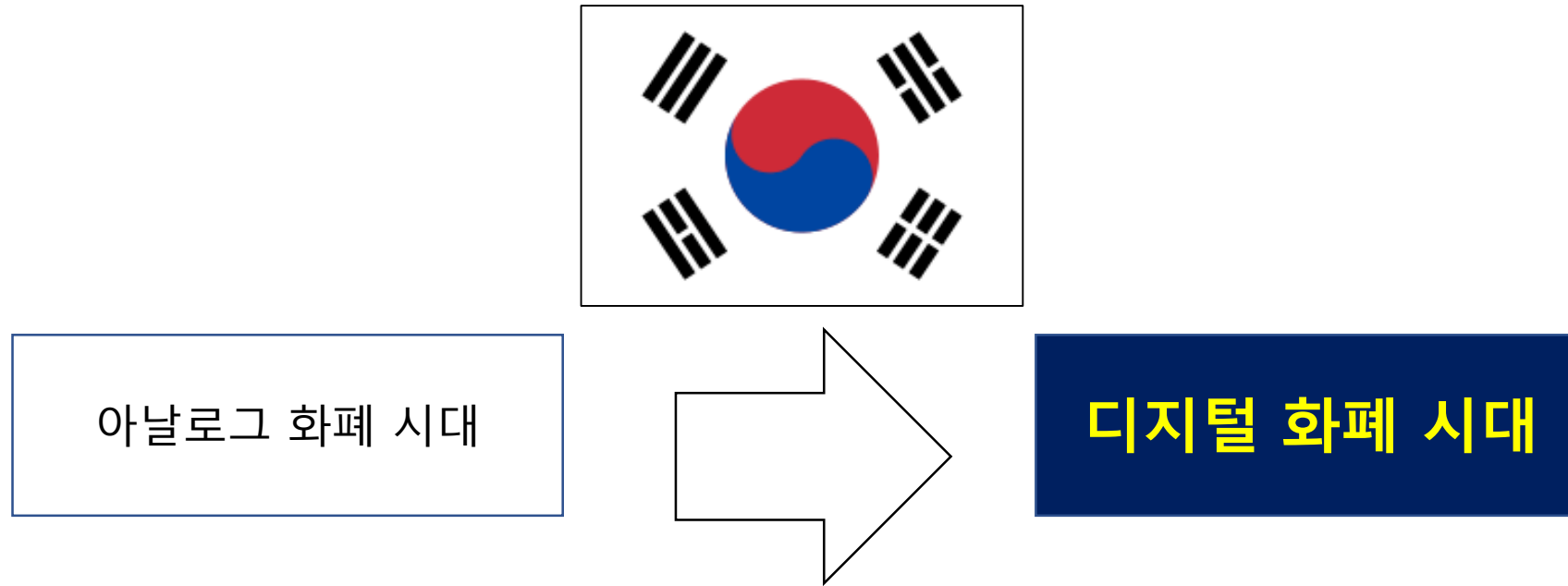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중국 CBDC는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에 초점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통화 개발 가속화
(加快数字货币开发进程 助推人民币国际化)’**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존재하는가?



1. 아날로그 화폐 시대가 디지털 화폐 시대로 바뀌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2. 한국이 유리하다면, 어떠한 면이 유리한가?
3. 전략적 우위는 '존속적 혁신'에서 오는가, '파괴적 혁신'에서 오는가?

어떤 국제화 메커니즘이 유리한가?



국내용 자산의
국제화

- 아날로그 원화의 국제화
- 각 나라별 해외 진출

VS

국제적 자산의
디지털화

- 국제적 자산의 디지털 전환
- 국제적 디지털 요충지의 선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



크리스텐슨 교수 공식 홈페이지 사진 <http://claytonchristensen.com/>

- 경영학의 아인슈타인.
- 『파괴적 혁신』 이론의 창시자.
-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 가장 훌륭한 논문을 써낸 저자에게 수여하는 맥킨지상 5회 수상
-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싱커스50>이 선정한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 50인 2회 연속 수상
-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크리스텐슨 교수는 위대한 기업이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락하는 메커니즘을 저서 『혁신기업의 딜레마(The Innovator's Dilemma)』로 풀어냈습니다.

크리스텐슨 교수가 더욱 큰 존경을 받는 이유는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솔루션은 저서 『성장과 혁신(The Innovator's Solution)』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의 핵심은, **위대한 기업이 큰 경쟁자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신규 경쟁자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새교육정보(<http://www.newedu.co.kr>)

위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더 열심히 개선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존속적 혁신'에 집중하는 반면, 신규 진입자들은 '파괴적 혁신'의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자들이 들고 있는 '파괴적 기술'은 처음에는 부족해 보이지만(Low-end Technology),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의 성능이 좋아지고 결국 시장의 대세가 되어 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업의 존속적 혁신 활동을 부정한다기보다 기업이 존속적 혁신에만 몰두해서는 근본적인 안전을 마련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높은 비용이 드는 화려한 혁신보다,
초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큰 가치를 창출할 성장 동력을 육성하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새교육정보(<http://www.newedu.co.kr>)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산**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 신용카드조차 보급률이 낮은 일본이 발행하는 CBDC가
- 디지털 강국 한국이 발행하는 CBDC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일본은행 부총재 발표록

【講演】

日本銀行はデジタル通貨を発行すべきか

「ロイター・ニューズメーカー」における講演

English

日本銀行副総裁 雨宮 正佳

2019年7月5日

全文 [PDF 1,446KB]

図表 [PDF 892KB]

1. はじめに

本日は、講演の機会を頂戴し、大変光栄に存じます。

わが国の決済システムを取り巻く環境には、近年、様々な変化がみられています。まず決済サービスの需要面をみると、夜間や休日にも利用できる決済手段や低コストの国際送金など、より利便性の高い決済サービス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消費者の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やeコマースの普及といった変化がその背景にあります。一方、決済サービスの供給面をみると、スマートフォンやICカードなど、人々が決済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媒体が広がっ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キャッシュレス決済サービスの提供においては、金融機関に加え、情報技術などに強みをもつノンバンク企業——いわゆるFinTech企業——など、多様な主体が関わ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일본은행 부총재 발표록

個人の決済手段に関する最近のアンケート調査をみると、消費支出に占める現金とキャッシュレスによる決済比率は、約半々となっています（図表2）。ここでは、決済手段の詳しい内訳がわかる調査結果をお示ししています。この調査では、キャッシュレス決済として、銀行口座間の送金を含んでいます。これを含まない調査がしばしば使われていますが、それと比べると、キャッシュレス決済比率の水準が高くなっていることをお断りしておきます。キャッシュレス決済の内訳をみると、クレジットカードの割合が約30%と高く、交通系・流通系企業などが発行するプリペイド式電子マネーは5%程度です。また、スマートフォンなどを用いて決済する、「○○ペイ」といったフィンテック決済サービスは1%未満とまだ僅少です。

では、今後、キャッシュレス決済の割合はどの程度のテンポで上昇していくのでしょうか。この点については、なかなか先行きを見通し難いですが、現金通貨の流通枚数の動向は参考情報として有益です（図表3）。2018年の現金通貨の流通枚数の前年比をみると、1円硬貨や5円硬貨はマイナスとなり、ごく緩やかに減少しています。一方、百円硬貨の流通枚数の前年比は0%台後半ですので、2018年の名目GDP成長率とほぼ同程度のテンポで増加を続けています。また、5百円硬貨や千円札は、前年比2%を上回るテンポで流通枚数が増えており、一万円札や五千円札の流通枚数は前年比3~4%とさらに高い伸びとなっています。

-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화가 잘 안 되고 있음
- 10,000 엔/5,000엔 지폐 유통은 오히려 늘고 있음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일본은행 부총재 발표록

一万円札などの高額紙幣に関するこうした流通枚数の増加は、低金利による現金保有の機会費用の低下に起因した、貯蓄目的が背景にあると思われます。いわゆる、タンス預金です。一方、千円札や500円硬貨、ましてや100円硬貨をタンス預金として溜め込む人は多くないでしょう。これらの流通枚数の増加は、貯蓄手段というより、決済手段として使われ続けてい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こうした事実を踏まえますと、釣銭が嵩張る少額決済において、キャッシュレス化が進んでいる側面が窺われますが、全体としては現金決済がなお多く使われ続けていると言えます。昨年2018年は、キャッシュレス決済に関する社会的関心はかなり高まりましたが、現金からキャッシュレスへの移行スピードは、メディアから受ける印象等とは異なり、緩やかであったように思います。先般の10連休前に、銀行のATMに長蛇の列ができたというニュースは、依然、多くの消費者にとって現金が重要な決済手段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 저금리와 장롱 예금의 증가가 원인
- 일본은 여전히 많은 소비자에게 현금이 중요한 결제 수단임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일본은행 부총재 발표록

キャッシュレス決済へのシフトが緩慢な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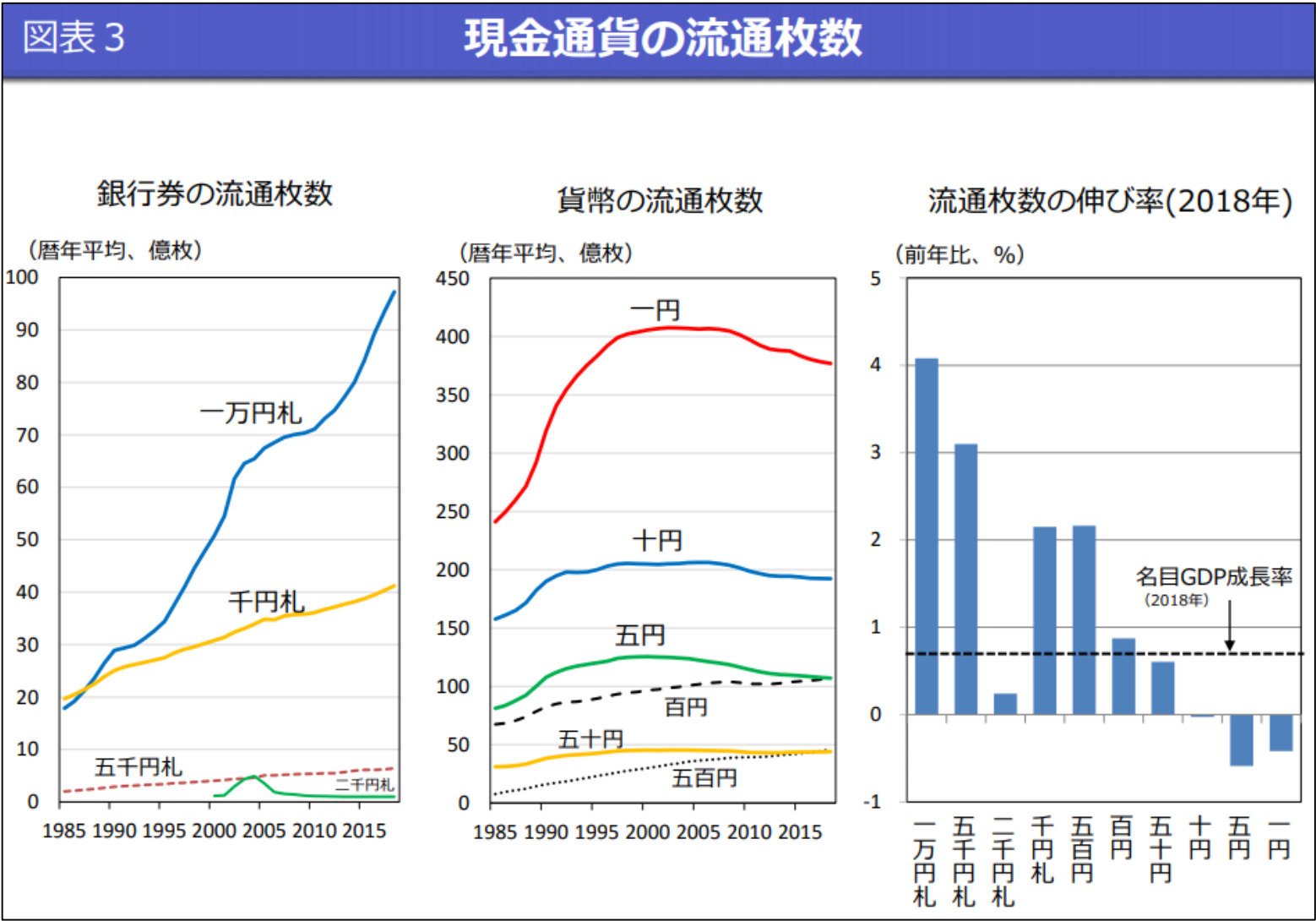
では、わが国でキャッシュレス決済へのシフトが緩慢であるのは何故でしょうか。現金決済の需要と供給、双方に原因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まず、現金決済の需要に関しては、キャッシュレス決済に比べお金を使い過ぎる心配が少ないといった要因のほか、盗難が少ないことや現金を落としても戻ってることが多い「治安の良さ」、紙幣の偽造防止技術の水準が高く、偽札の流通が少ないなど「現金に対する信頼」といったものが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また、長きにわたって続く低金利環境が現金需要を押し上げている側面もあるでしょう。

- “현금에 대한 신뢰” 라는 것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직역)
- 금융기관 점포망과 ATM 망이 촘촘함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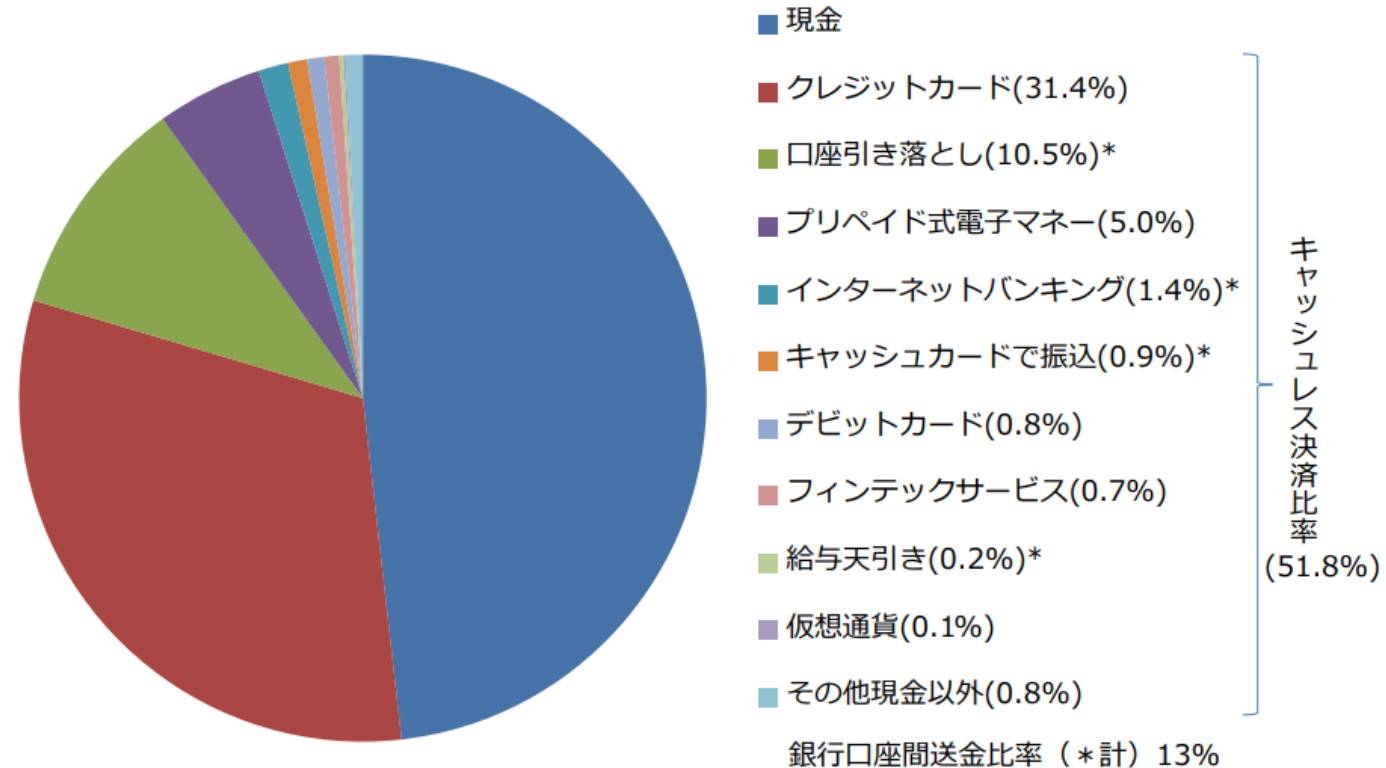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図表2

個人消費支出の決済手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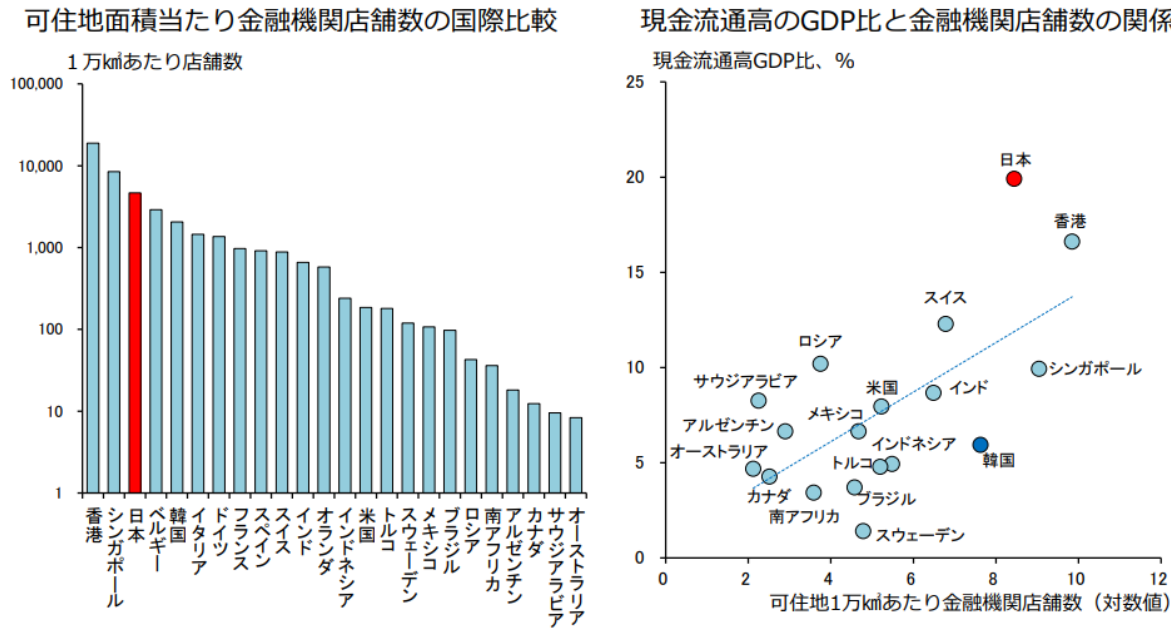
注) 円グラフで、「プリペイド式電子マネー」は、プリペイド(前払い)式の電子マネー(Suica、PASMO、楽天Edy、nanaco、WAONなど)を表す。また、「フィンテックサービス」は、プリペイド式電子マネー以外の、フィンテック企業による決済サービス(iD、QUICPay、Alipay、Wechat Pay、Apple Pay、Google Pay、楽天ペイ、LINEペイ、Origami Payなど)を表す。調査対象は全国に住む 20歳~69歳の男女3,000人(インターネット調査)。
出所)NIRA 総研「キャッシュレス決済実態調査」、2018年9月

2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19/ko190705a.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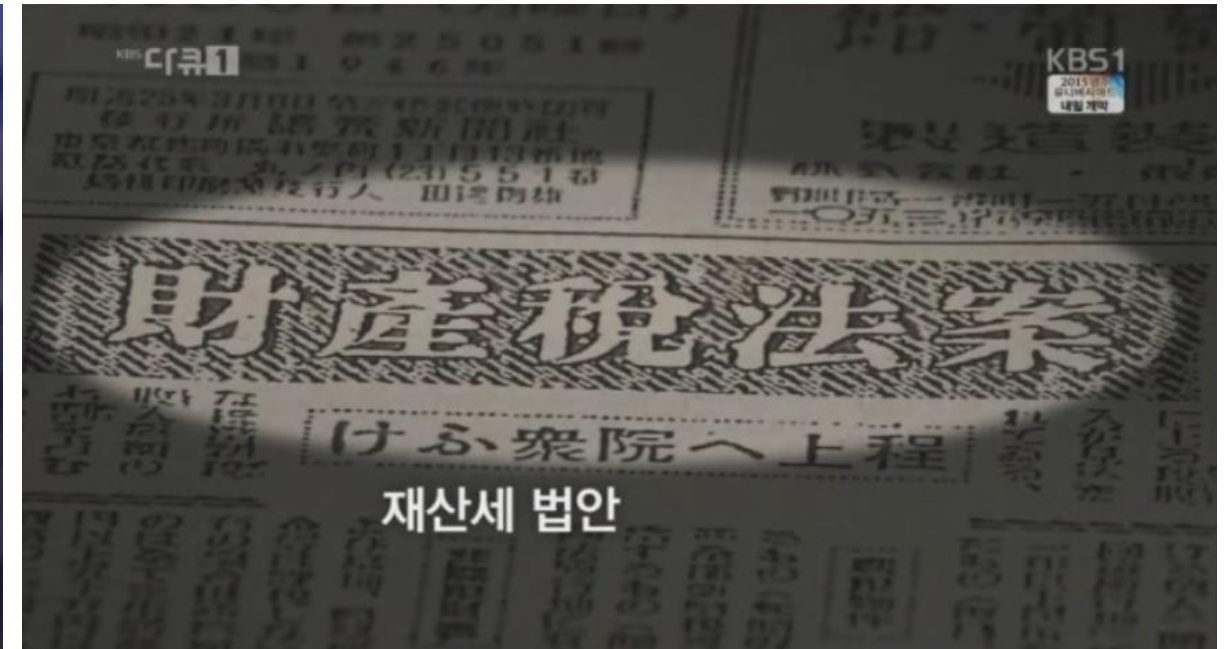
図表 4 金融機関の店舗数と現金流通高に関する国際比較



注) 金融機関店舗数に関して国際比較可能な最新時点である2016年時点(日本は2016年度)を表示。可住地面積は総面積から森林面積を差し引いて算出。出所) BIS "Statistics on Payments and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世界銀行、IMF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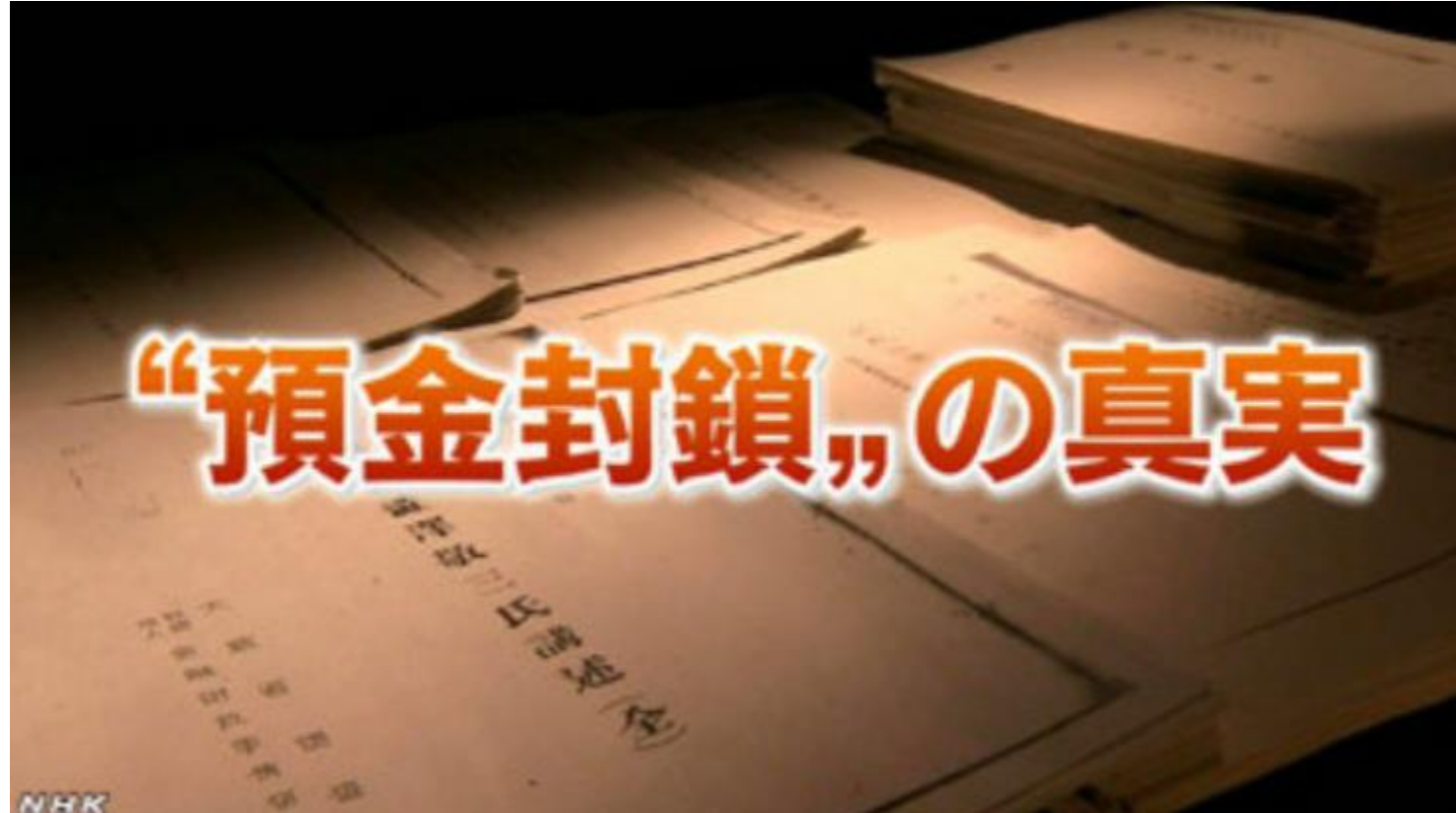
- 금융기관 지점 수와 현금유통고에 관한 국제 비교
- 주거 가능 면적당 금융기관 지점 수 국제 비교
- 현금유통량의 GDP대비와 금융기관 지점 수 관계

일본의 현금 신뢰가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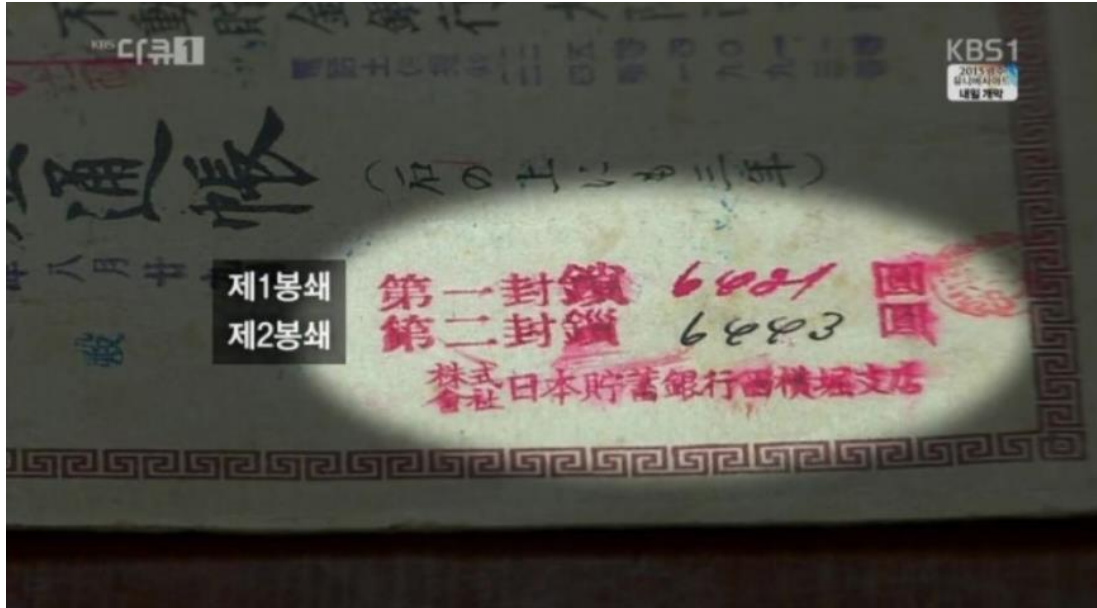
- 일본 국가 부채는 1944년 이후 급격히 감소 (부동산, 재산에 90% 세금 부과)

일본의 현금 신뢰가 높은 이유



- NHK 보도한 [예금봉쇄의 진실]
- 1946년 2월 16일 일본정부가 조치한 예금봉쇄의 트라우마

일본의 현금 신뢰가 높은 이유



- 일본의 예금 봉쇄로 국가 부채는 1944년 이후 급격히 감소 (부동산, 재산에 90% 세금 부과)

日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가네코 마사루



버블 붕괴 후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했을 때(2001년)예요



GDP의 2배가 넘는 재정적자는 역사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이나 혁명을 제외하면 해결한 사례는 없었어요



재정적자를 계속 내서 무리하게 중앙은행의 매입으로 버티려고 하는 이런 상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

경제

한국 구매력평가 1인당 GDP 2023년에 일본 추월 전망

입력 2019.08.11 07:14 | 수정 2019.08.11 07:20

IMF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1980년 4배 넘는 격차서 꾸준히 좁혀
1980년 17배이던 日경제규모 현재는 3배...韓신용등급 日보다 우위

2023년께 한국의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 중국이 발행하는 CBDC가
- 자유롭게 사용되는(freely usable) 측면에서
- 한국CBDC보다 전 세계적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경제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신종 코로나로 중국 경제 무너지면, 치명타 1위는 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0.02.03 15:21



가

가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 북미 시장에서 1위인 네이버 웹툰과 일본 시장에서 1위인 카카오 페이지에 한국 CBDC가 결제수단으로 장착되면 원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
-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페이와 한국 CBDC를 결합하여 글로벌 버전을 출시해 외국인 구매를 끌어들이면 국익에 유익할까?
- 토스가 영문 버전을 출시하여 한국 CBDC를 결합한다면 국내 은행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만 원권 환수율은 40.1%로 1만 원권 환수율 95.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상당량이 지하경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CBDC를 도입하면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 질 수 있을까?
- 부동산금이 최대치에 이르고 돈이 안 돈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데, CBDC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유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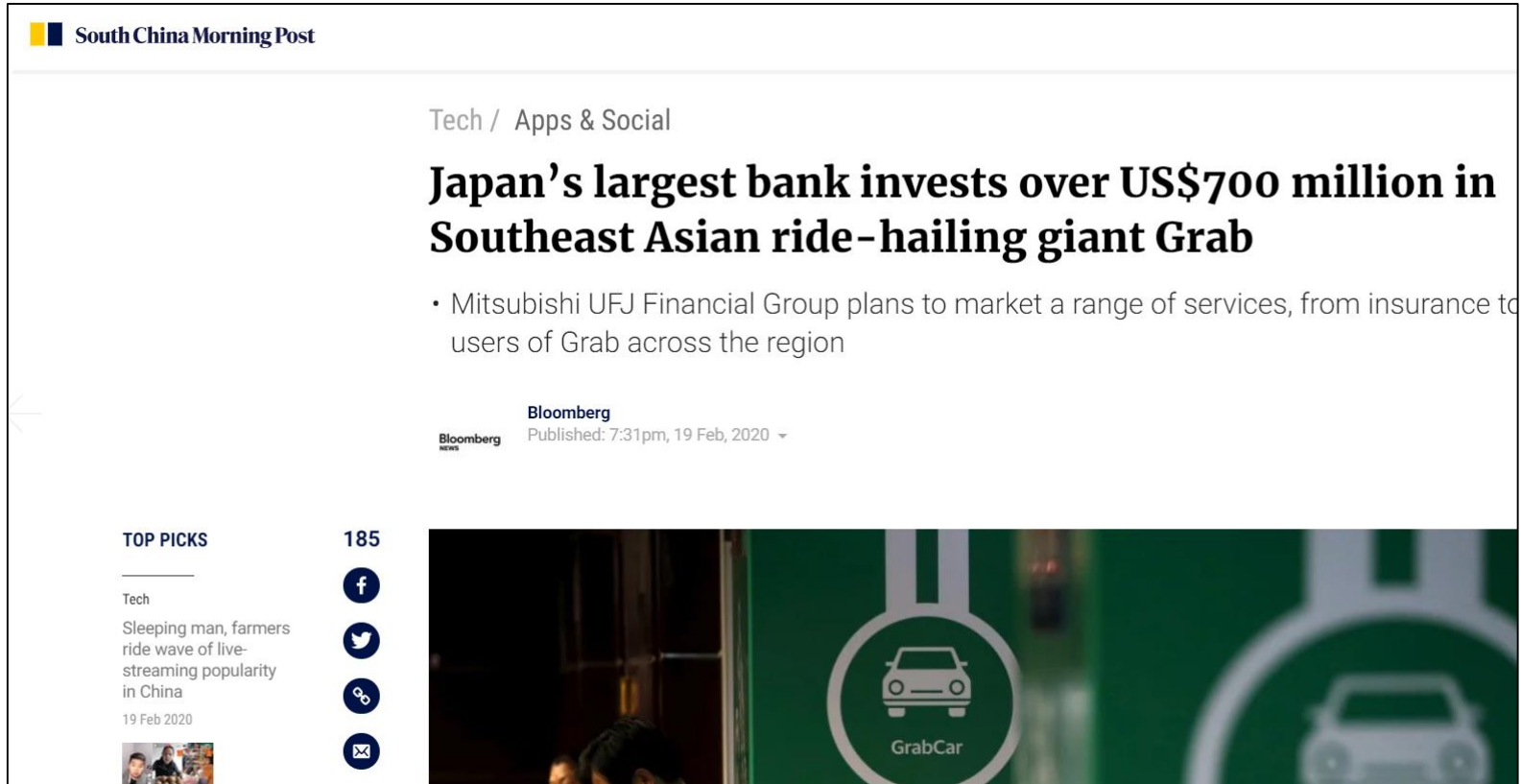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 스마트폰이 디지털 은행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 그렇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이 금융업을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파괴적 생각의 중요성



- 日 미츠비시 UFJ 은행은 그랩에 8,000억 원대 투자
- 그랩은 싱가포르에 인터넷 은행 신청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산

- 국제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화해버리면
- 한국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

김수중 칼럼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

은행이 기후위기에 소매 걷고 나서다

우리나라 은행이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당장 '한국전력'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전력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석탄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은행이 환경적 평가가 나쁜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를 꺼리는 사태는 의외로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기후변화가 '미래의 위기'에서 '임박한 위기'로 평가가 바뀌면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후위기 관리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최근 이 논의의 선봉에 선 사람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역임한 사람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이 시장 중립성 원칙에 기초하지만 향후에는 최소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QE)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린본드를 집중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본드(Green Bond)는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사업과 연관된 채권

을 의미한다. 바꿔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그린본드를 많이 사면 그만큼 화석연료 관련 사업은 압박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임박한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 요구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7개 주요 은행 및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서가고 있다. 또 영란은행은 프랑스 및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함께 기후변화 위험을 논의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 모임인 '녹색금융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는 2017년 출범 당시 8개였던 회원국수가 54개로 늘어났다. 한국은행도 최근 가입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개입은 논쟁거리다. 통화 및 물가안정이라는 종래의 전통적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기후변화 개입은 기후위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킬 경제적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관리차원에서도 은행의 기업거래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실적을 세우느냐가 융자조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은 유럽의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자산관리회사 같은 '그림자은행'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

했다. 미국의 자산관리 회사 '블랙록'(Black Rock)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회사의 래리 핑크 회장은 고객에 보낸 '2020 서신'에서 "지속가능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랙록은 1988년 설립되어 역사는 30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세계최대 자산관리회사로 30개 국가에 70개 지사를 두고 있다. 물론 서울에도 지사가 있다.

각국의 정부펀드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자금 등을 포함하여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는 7조달러다. 2019년 미국의 GDP(국민총생산) 추정치가 21조달러, 중국이 14조달러, 일본이 5조달러, 그리고 한국이 1조6000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핑크 회장은 새해가 되면 연례적으로 블랙록이 투자하는 회사의 CEO 등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투자지침 등 자사의 의사결정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핑크 회장은 지난 14일 보낸 2020년 공개편지에서 기후변화 위험으로 금융재편이 임박했으며 블랙록의 투자운용에 이런 상황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핑크 회장은 "기후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장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투자 리스크(위험)"라고 주장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블랙록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지속가능기금 확대, 석탄에너지 투자규제 등이다.

핑크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블랙록의 투자 및 자산관리 하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탄소배출과 기후리스크를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의 25% 이상을 발전용 석탄생산으로부터 얻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2020년 중반까지 모두 팔아치우고, 지금 블랙록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 자산 900억달러를 10년 안에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최대 자산관리회사도 '기후금융' 강조

핑크 회장은 이 서신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로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파리협정 목표와 맞춘 각국 정부들의 통합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자산회사 CEO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각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중국이 꾸민 사기극"이라고 폄하하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앞장서서 체결한 파리협정에서 작년 탈퇴해버렸으니 말이다.

기후변화는 처음엔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후 환경운동가들의 영역이었다가, 21세기 들어 유럽국가에서 정치 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금융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후 금융 분야

HOME > 정책/금융

글로벌 은행권 '기후금융' 도입...국내은행도 쟁점

최욱 기자 | 승인 2019.07.11 11:13 | 댓글 0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글로벌 은행들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기후금융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과 국책·민간 은행이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기후금융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글로벌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활용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가 대출 평가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시 의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후금융이란 개념의 확산과 함께 시작됐다. 유엔은 기후금융을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정의한다.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기후금융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KB지식비타민

연구센터

연구소 소식

경영환경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2018-08-27 • 김예구 • 조회수 2661

☐ 탄소배출권 및 거래 시장 현황

☐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 금융산업의 활용 방안

- 탄소배출권은 지역마다/연도마다 가격이 다양함
- 탄소배출권을 국제적으로 디지털화하려면 지역/연도 데이터 태깅 필요함
- 현재 ERC-20 으로는 지역/연도 태깅 시스템이 어려움
- 반대로 생각하면, 탄소배출권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ERC 규약을 선점하면, 표준화를 통한 국제화의 기회를 잡게 됨.

표준화 전략 사례 (ERC = Ethereum Request Comment)

ERC20



ERC의 기준 중에 거의 대부분은 ERC-20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EOS, 오미세고, 트론, 스톱, 펀디X 등등 메인넷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토큰들은 ERC-20 기준으로 제작 됨

ERC-20의 가장 큰 특징은 Fungible(대체가능, 상호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ERC721



대체 불가능한 가치(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유니크라는 특성을 지님
이는 코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
마치 완전히 복제 된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특별하고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

ERC-721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크립토키티(고양이 게임)
이 게임은 생성되는 고양이가 매번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 특수함, 유니크함을 강조하고 가장 싼 고양이가 2만원 가량 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ERC-1155 (게임회사 엔진사의 사례)

 GitHub, Inc. [US] <https://github.com/ethereum/EIPs/blob/master/EIPS/eip-1155.md>

Simple Summary

A standard interface for multiple item/token definitions in a single deployed contract.

Abstract

This standard proposes a new monolithic token contract that can mint any quantity of Fungible and Non-Fungible tokens in the same contract. We call these "Items" as they differ from the existing standards by being full definitions and configurations of multiple tokens inside a single contract. Standards like ERC-20 require deployment of separate contracts per token. The ERC-721 standard's Token ID is a single non-fungible index and the group of these non-fungibles is deployed as a single contract with settings for the entire collection. Instead, the Crypto Item Standard allows for each Item ID to represent a new configurable token type, which may have its own totalSupply value and other such attributes.

The `_itemId` parameter is named as such and placed at the beginning of each function.

Motivation

Tokens standards like ERC-20 and ERC-721 require a separate contract to be deployed for each fungible or NFT token/collection. This places a lot of redundant bytecode on the Ethereum blockchain and limits certain functionality by the nature of separating each token contract into its own permissioned address. With the rise of crypto games and platforms like [Enjin Coin](#), game developers may be creating tens of thousands of items, and a new type of token standard is needed to support this.

한국 조폐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중요성



한국 조폐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중요성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71604

[화폐 이야기] 대한민국은 화폐 주권을 이룬 나라

2017-07-11기사 편집 2017-07-11 14:19:33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좋아요 0개 공유하기



장광호 한국조폐공사 기술처장

화폐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돈이 없으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막히고 나라경제 또한 어렵게 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고유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화폐를 쓰는 것은 '자주'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계에서 지폐(은행권)를 스스로의 힘으로 제조하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답은 대한민국,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6개국이다. 그래서 자국 화폐의 자체제조 가능 여부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지폐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6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한국 조폐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중요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54534>

KBS NEWS 분야별 ▼

뉴스9 취재K 정보K 글로벌K 스포츠 **크랩** | 코로나19 팩트체크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집중진단] 돈 수출 '쑥쑥'... '화폐 한류' 바람

입력 2012.03.24 (21:45) 뉴스 9

0 0 0 0

가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집중진단

화폐 수출 고속 성장

한국 조폐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중요성

<http://bit.ly/2HF43xX>

해외수출사업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은 물론 은행권 용지, 용지원료인 면필프, 주화, 전자여권, 주민증용 칩셋, 특수잉크와 연료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사업매출은 사상최대인 629억원에 달했다.

조 사장이 무엇보다 가장 신경을 쏟는 부문은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공공플랫폼인 'KOMSCO신뢰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이다. 현재 조폐공사가 종이형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 성남과 시흥 등지에서 시범서비스가 진행중이다.

조 사장은 "올해를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보완서비스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시대와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공역할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올해 목표인 매출 4910억원을 달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국 조폐공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중요성

<http://bit.ly/2HF43xX>

- 한국이 CBDC를 선도하면,
- 한국 조폐공사의 수출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의의 측면에서) 원화의 국제화 가속화

- 한국이 CBDC 흐름에서 뒤쳐지면
- 한국 조폐공사의 기존 수익모델은 무너짐

전략적 요충지 선점의 중요성

디지털 국제 자산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국제적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면

더 많은
디지털 국제 자산들이
발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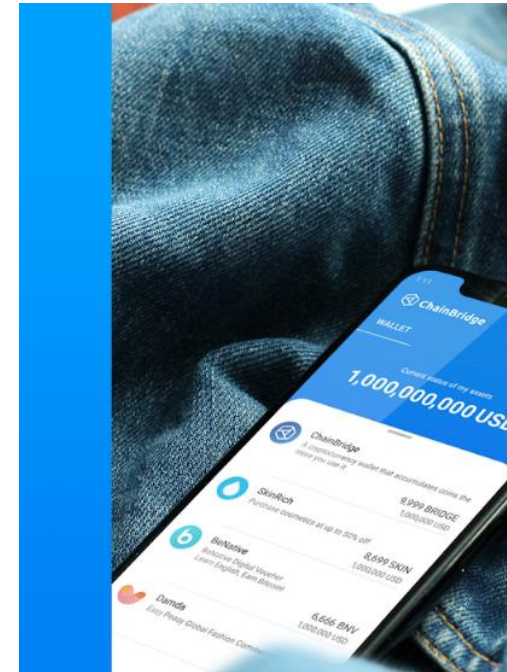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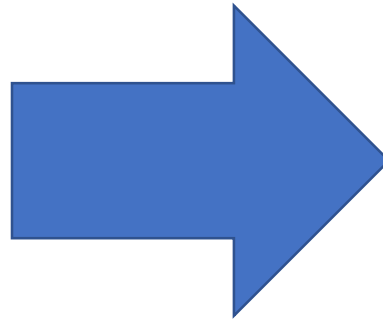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질까?

전략적 요충지 선점의 중요성

디지털 국제 자산들이 많아지면



아날로그 지갑



디지털 지갑

디지털 자산의 특징

유형과 속성

발행과 배포

행동유도

가치확보

유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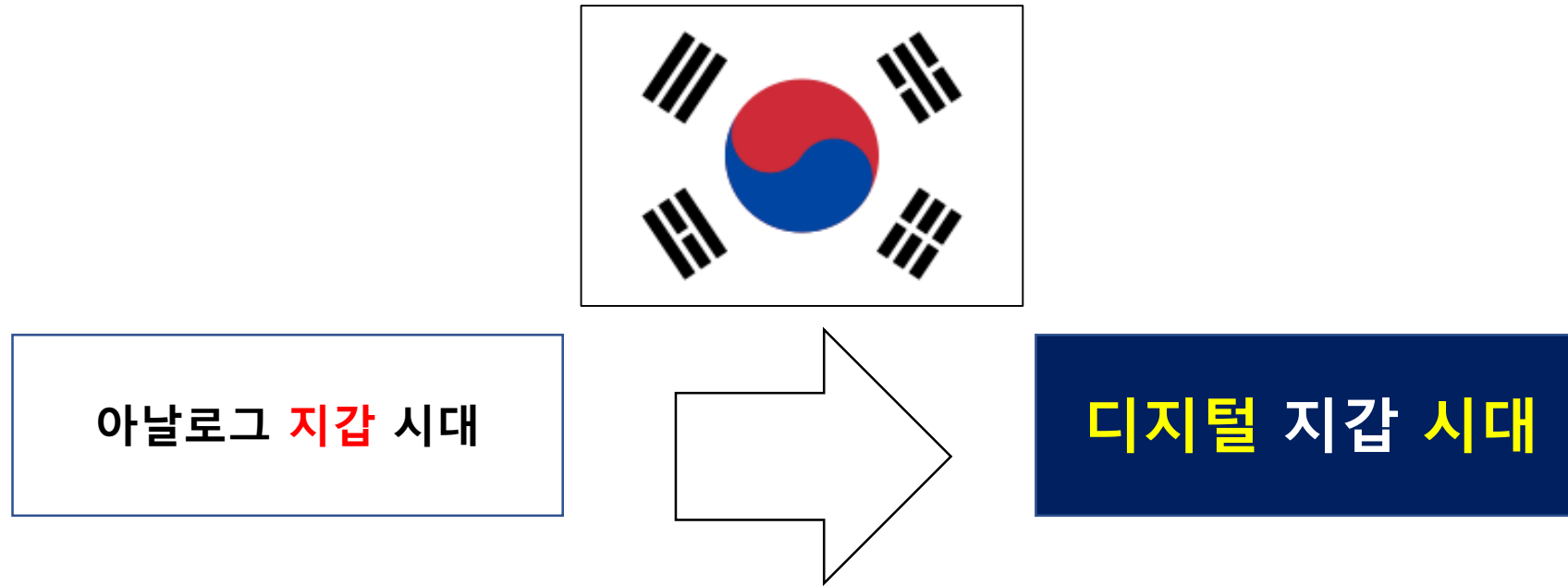
결합

추적

소각

가치평가

디지털 지갑 시대는 한국에 유리한가?



1. 아날로그 지갑이 디지털 지갑으로 바뀌면 한국에 유리한가?
2. 디지털 지갑 점유율을 장악하면, 표준화 효과 창출에 유리한가?
3. 디지털 지갑은 자산 보관 외에, 자산의 유통과 통제의 효과가 있는가?
4. 디지털 자산 유통과 통제의 효과가 있다면, 금융(金融)과 시너지가 있는가?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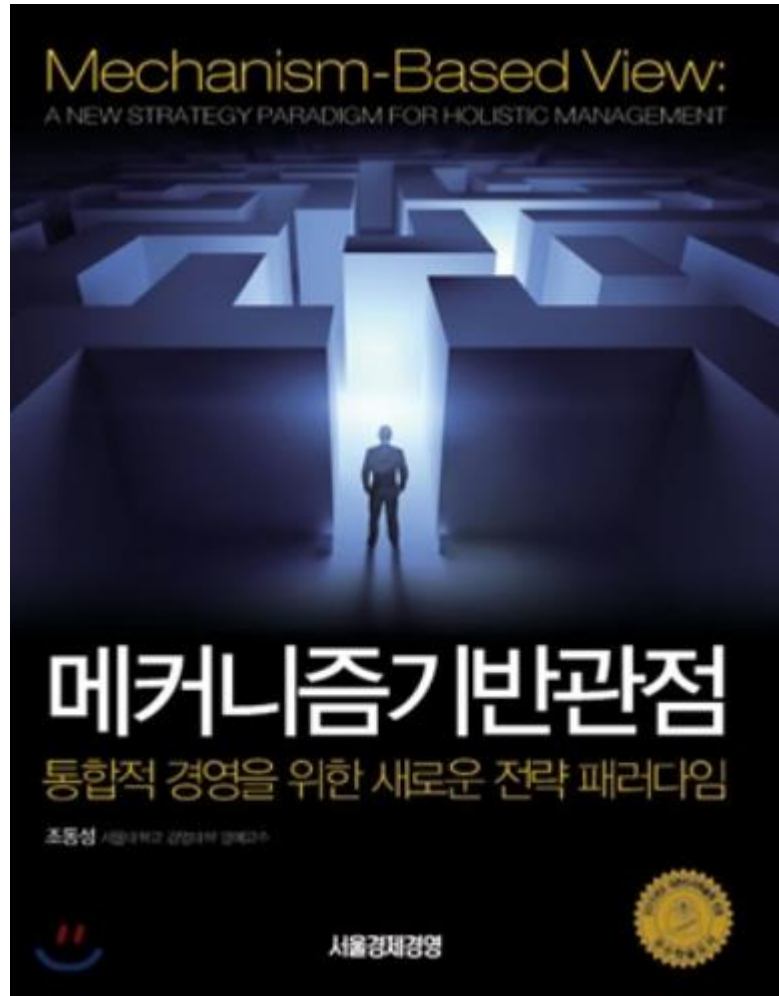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SER-M

**미래 시장점유율
토큰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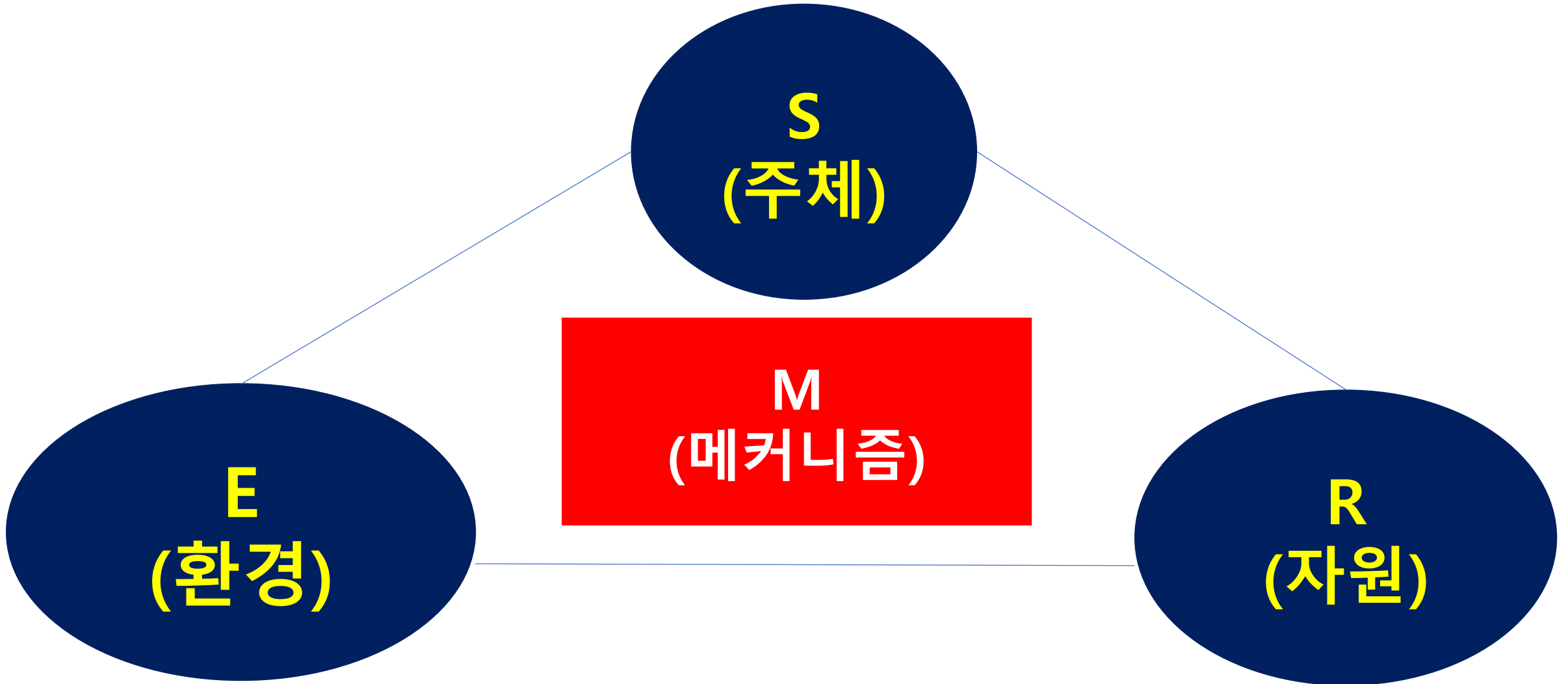
**토큰경제 설계
8-Step
프레임워크**

경영학에서 바라 본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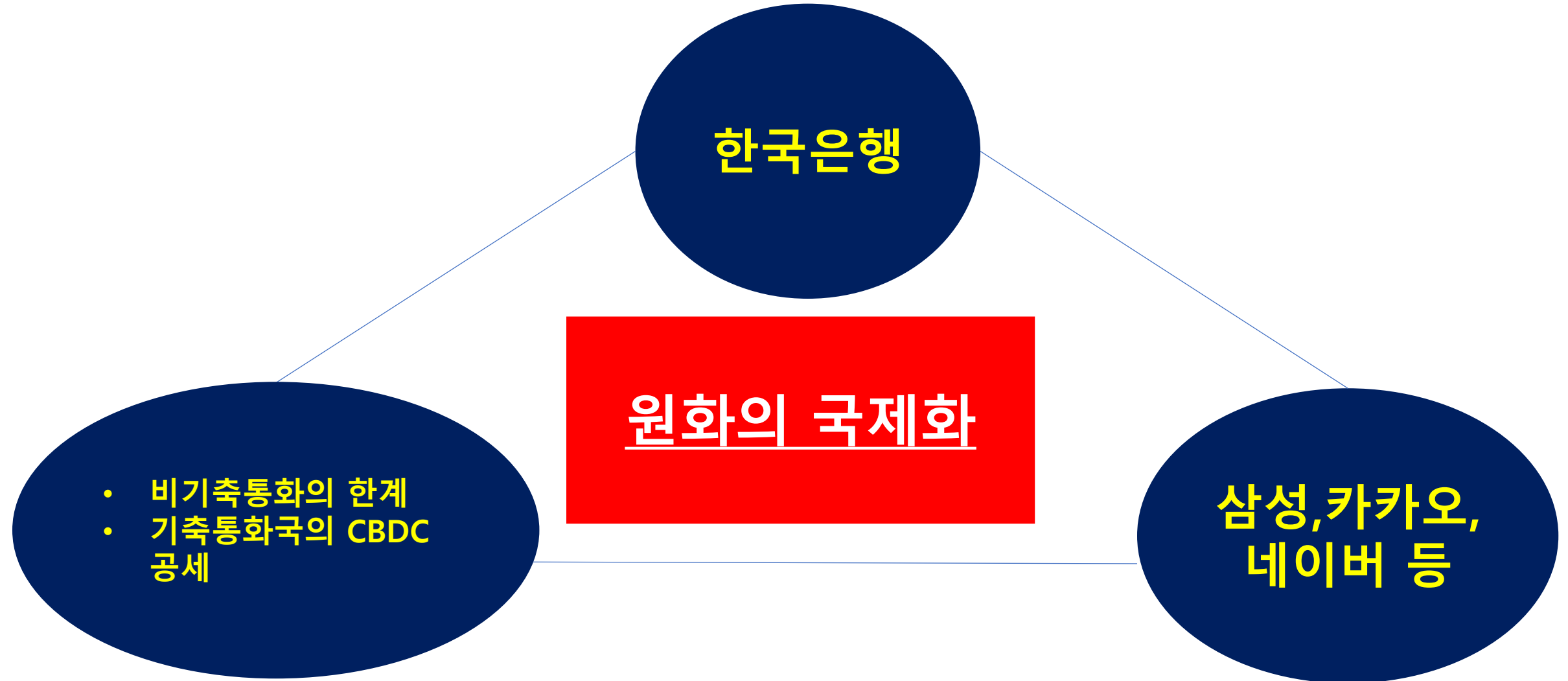


조동성 교수님
(Dongsung Cho)

경영학에서 바라 본 메커니즘 (ser-M 초기 모형)



한국CBDC에 대한 SER-M 적용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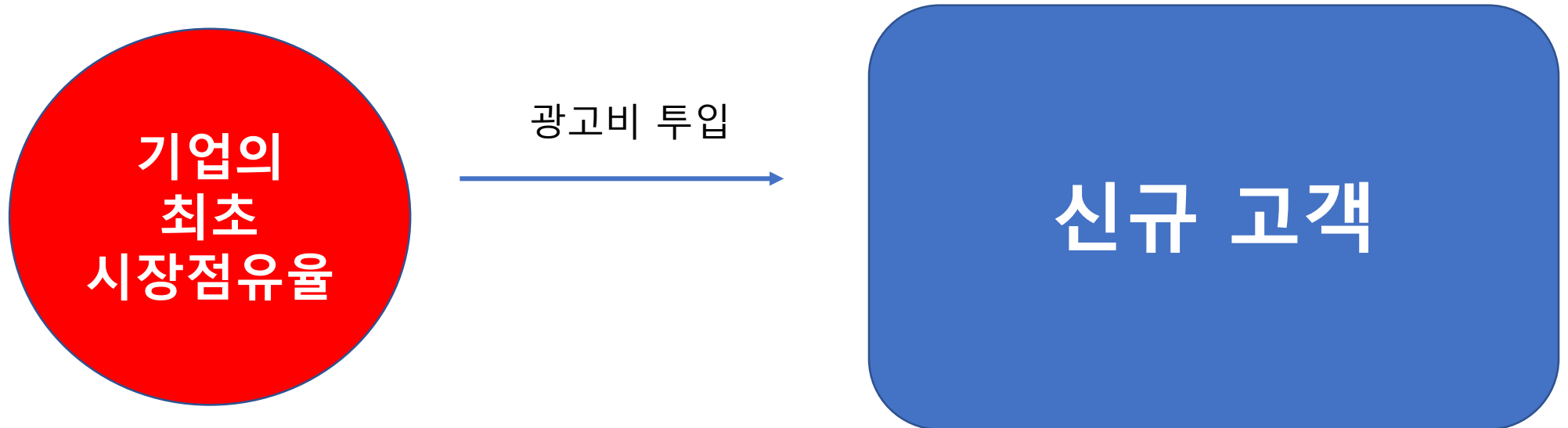
SER-M

미래 시장점유율
토큰화 전략

토큰경제 설계
8-Step
프레임워크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장 패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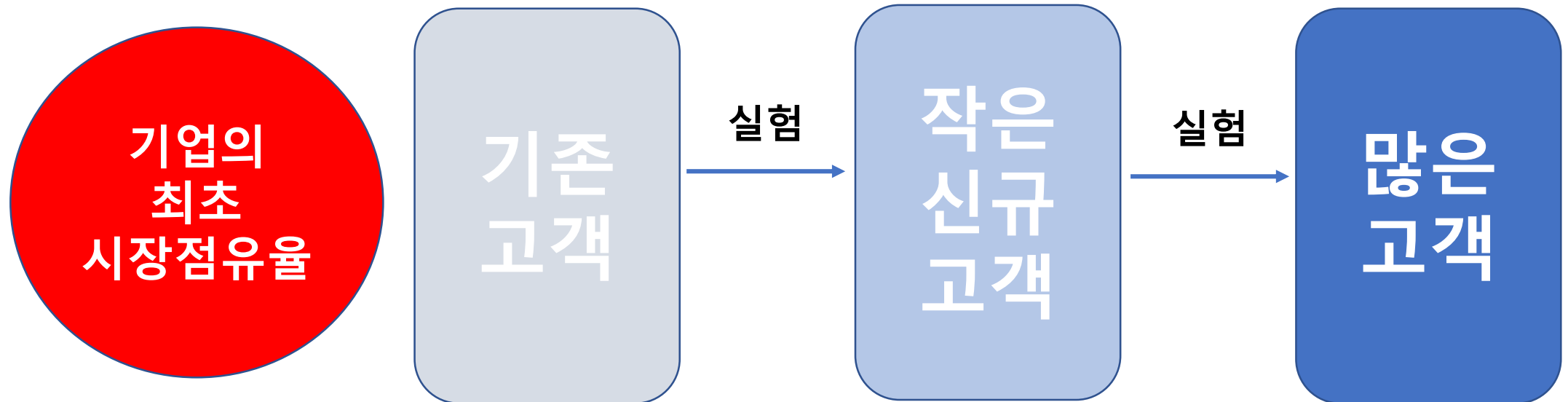
고전적 마케팅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장 패턴의 변화

그로스 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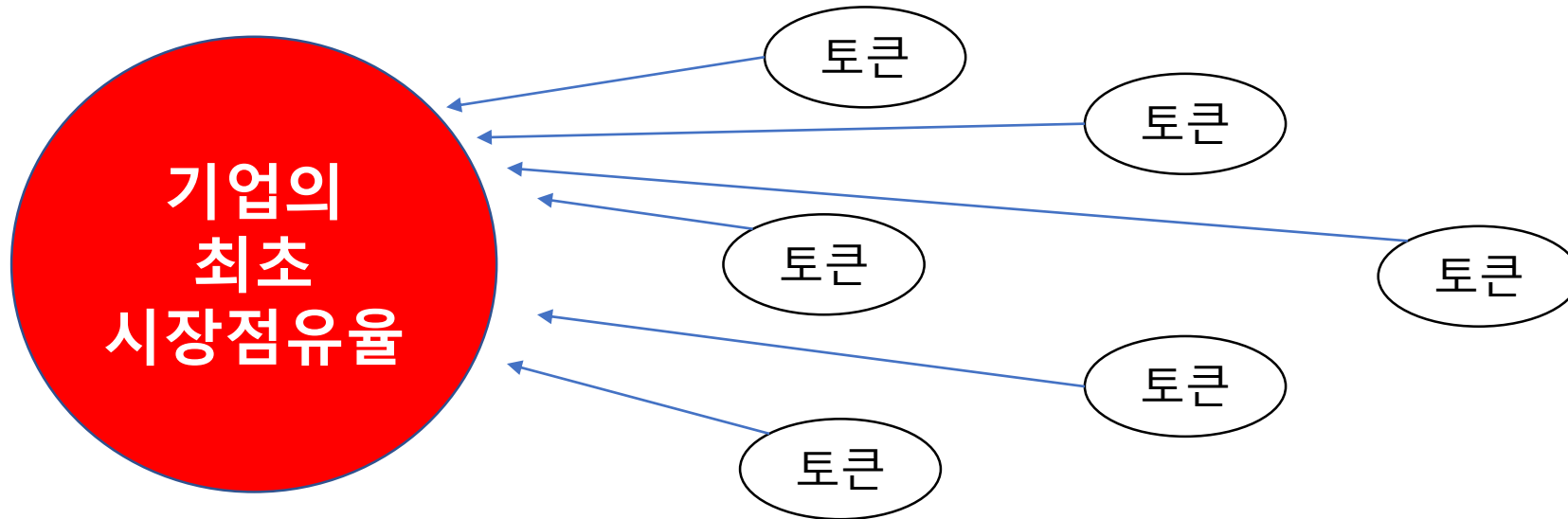


<http://www.venturesquare.net/761955>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장 패턴의 변화

토큰 발행

신규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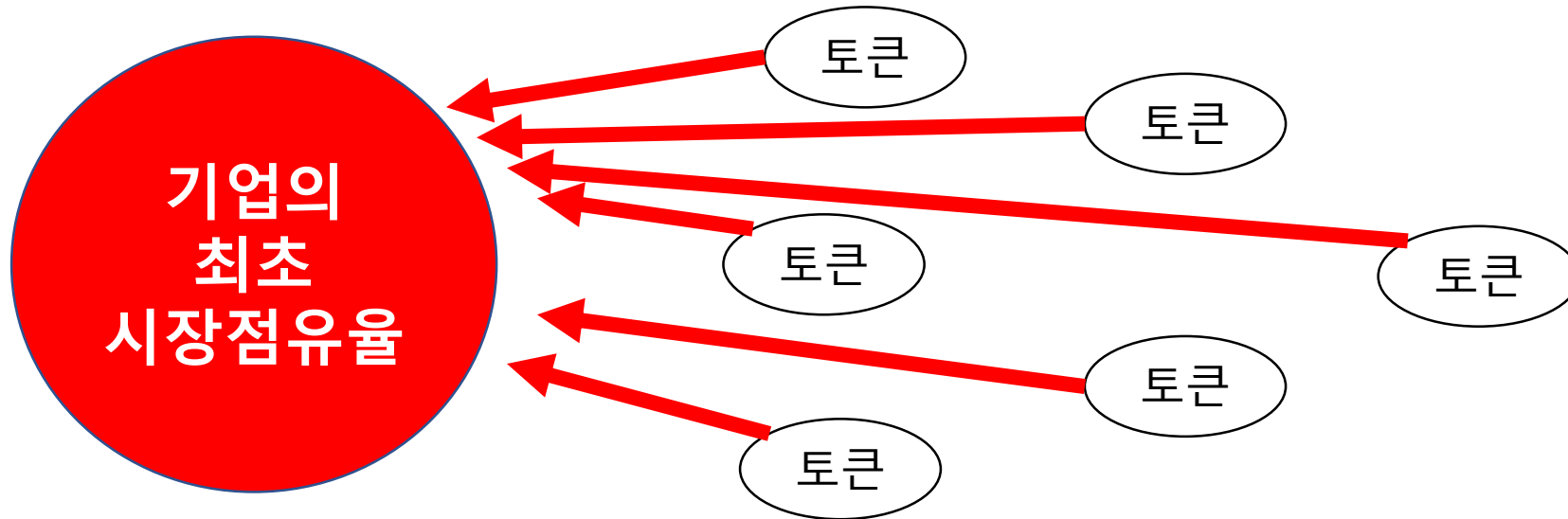


✓ 증가된 시장점유율의 가치를 고객과 공유

행동경제학과 토큰 기반 마케팅의 관계

토큰 발행

신규 고객



✓ 토큰 보유자들의 화살표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토큰 이코노미 전략의 핵심 : 토큰 홀더의 에너지 극대화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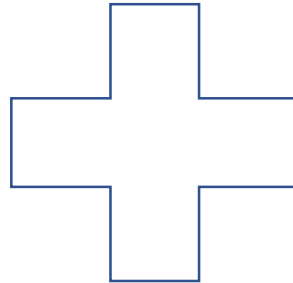
- Hub의 발견
- Hub의 육성

네트워크 과학

어떻게
동기부여 할 것인가?

- Hub의 토큰 획득 극대화
- Hub의 토큰 홀딩 극대화
- Hub의 토큰 장기적 수요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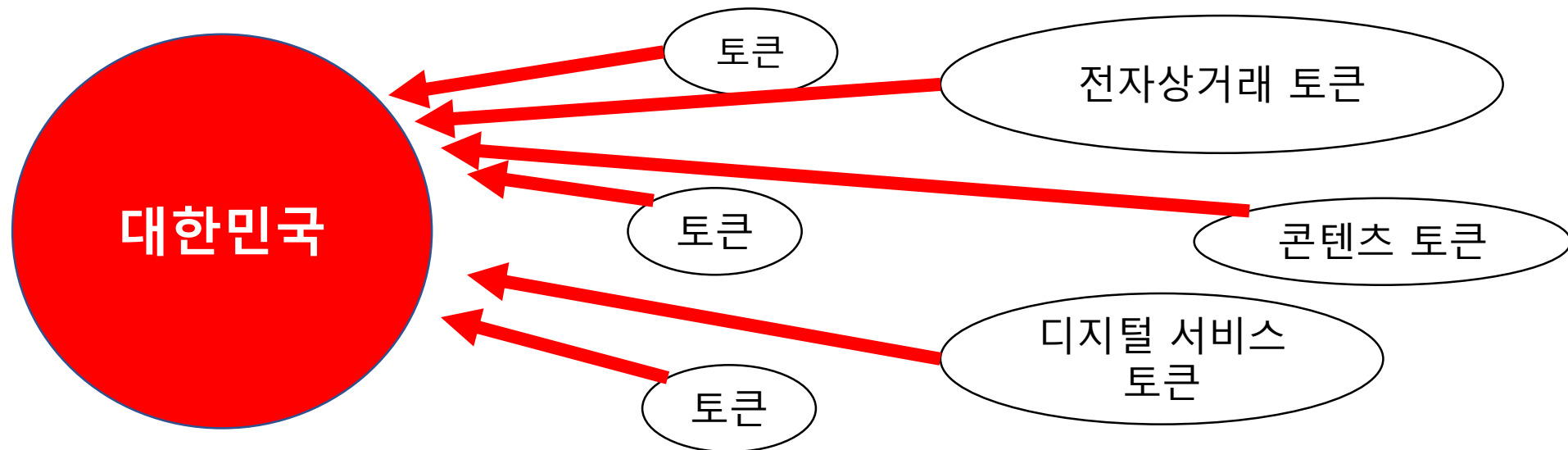
행동경제학



국가 단위에서의 토큰 이코노미

CBDC 발행

글로벌 시장



✓ 외국인들이 Digital Korea 플랫폼으로 달려들게 하면 국익에 유리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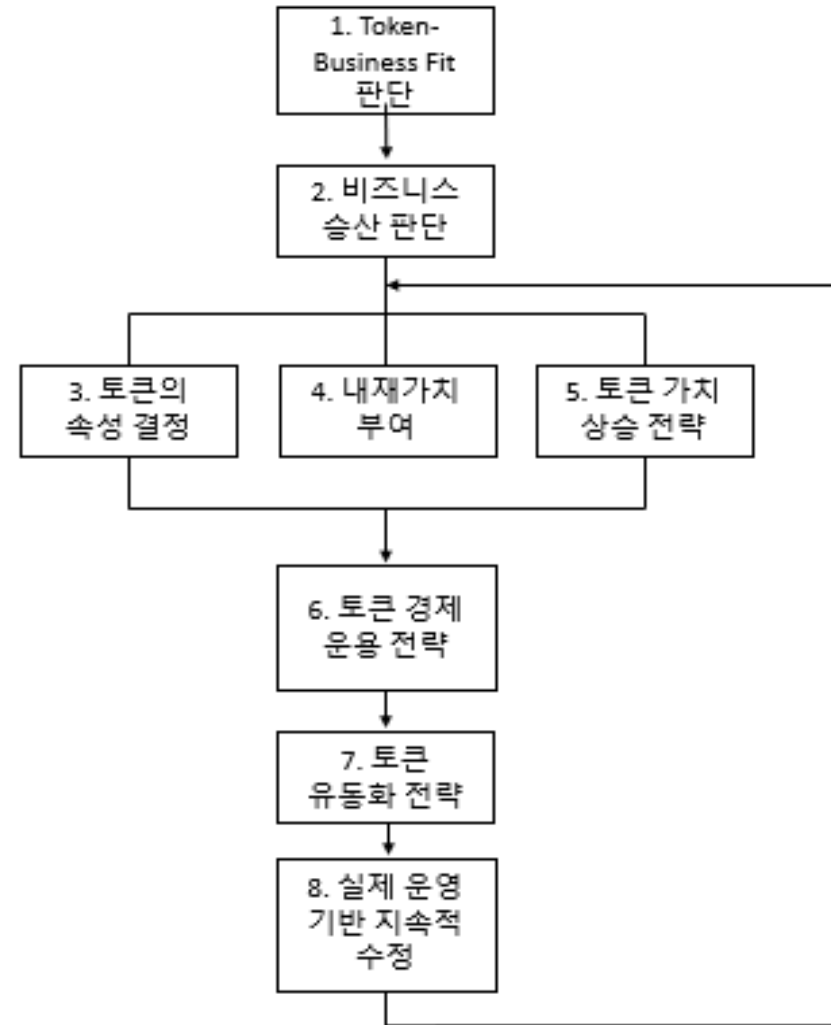
SER-M

미래 시장점유율
토큰화 전략

토큰경제 설계
8-Step
프레임워크

크립토 경영전략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 ✓ 기존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 ✓ **크립토 전략프레임워크가 필요함**



Article

Sustainable Growth and Token Economy Design: The Case of Steemit

Moon Soo Kim¹ and Jee Yong Chung^{2,*}

¹ Department of Crypto MB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aSSIST), Seoul 03767, Korea; mskim@assist.ac.kr

²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01369, Korea

* Correspondence: chungjeeyong@duksung.ac.kr; Tel.: +82-2-901-8708

Received: 31 October 2018; Accepted: 24 December 2018; Published: 30 December 2018



Abstract: Cryptocurrency blockchain technology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nd the number of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s increasing rapidly. This new economic trend, called cryptoeconomics, can program human behavior through incentive design. A cryptocurrency-based incentive system is not only transparent, but also allows businesses to substitute initial investment costs with cryptocurrency tokens until they are on a sustainable growth trajectory in terms of network effect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ocess for building a desirable model of a token economy, based on the case of Steemit—a blogging and social networking website that is creating high values due to its efficient token economy model. We suggest the following design process of a token economy model: (1) Determine token-business fit, (2) determine the chance of success, (3) determine the properties of token, (4) give tokens intrinsic value, (5) establish strategies to raise token value, (6) establish operational strategies of token economy system, (7) establish strategies for token liquidation, and (8) continue modifying the operational base. Considering cryptoeconomics is still at an early stage,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s on the token economy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will lay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ryptoeconomics research.

한국 CBDC의 평가

- Token Economy Design 8-step Framework를 기반으로-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절차의 프레임워크

**1. Token-Business
Fit 판단**

**2. 비즈니스
승산 판단**

**3. 토큰의 속성
결정**

**4. 내재가치
부여**

**5. 토큰 가치
상승 전략**

**6. 토큰 경제
운용 전략**

**7. 토큰
유동화 전략**

**8. 실제 운영
기반 지속적 수정**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1단계 : Token-Business Fit 판단 : 토큰과 사업의 적합성

토큰화할
비즈니스 자산이
있는가?

토큰 적용으로
새롭게
실현가능해질
사업인가?

토큰 발행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 ✓ 한국은 10대 무역국, 12위 GDP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
- ✓ 그렇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원화의 국제화가 현저히 뒤쳐져 있음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2단계 : 비즈니스 승산 판단

신규 매출
창출 가능한가

시장점유율
확대될까?

카테고리
선점가능한가?

화폐발권력
이 있는가?

- ✓ 한국 CBDC는 동아시아 리더십, 카테고리 모두 쫓기는 입장
- ✓ 한국 CBDC는 국제적 관점의 화폐발권력의 보완이 필요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3단계 : 토큰의 속성 결정

Platform Token

- ✓ 거래소 등의 플랫폼의 사용 수수료로 지급 가능

Service Token

- ✓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교환 또는 할인 구매

Reward Token

- ✓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

Membership Token

- ✓ 프랜차이즈 가맹비 혹은 보증금 등의 토큰

✓ 한국 CBDC의 핵심 포인트는 유통 대상이 기존 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환경임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4단계 : 토큰 내재가치 부여

의미

- ✓ 토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치
- ✓ 발행 후 내재가치 부여가 빠를수록 유리

예시

- ✓ 광고 플랫폼 100만 View 노출 단가가 법정화폐 1백만 원 or Token 100개이면 1개 Token 의 초기 내재가치가 1만원

- ✓ 한국 CBDC는 Fiat Currency 기준으로 초기부터 내재가치 부여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5단계 : 토큰 가치상승 전략

초기 보유 촉진 전략

- ✓ 초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가중 보상

장기 보유 촉진 전략

- ✓ 토큰을 장기 보유할수록 토큰을 추가 보상하거나 전용 혜택 설계

카테고리 선점 전략

- ✓ 토큰화되지 않은 산업 카테고리를 선점

표준화 전략

- ✓ 새로운 형식의 토큰 프로토콜을 제시

- ✓ 한국 CBDC는 카카오/네이버/라인/토스 등 Digital Korea의 환경을 통해 유통되고
- ✓ 해외 확장 욕망이 강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참여에 응할 인센티브가 명확하고
- ✓ 한국 정부는 아날로그 화폐에서 가질 수 없었던 국제화폐 기득권에 대한 Game Change 기회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6단계 : 토큰 이코노미 운용 전략

사업 성장 연동형

- ✓ 사업이 성장할 수록 토큰에 부여된 교환가치가 상승하게 하는 것 (예: Golem)

소각형

- ✓ 토큰의 유통량을 정기적으로 소각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토큰을 소각하게 하는 것 (예: Factom)

분배형

- ✓ 광고비 등 토큰 시스템에 유입된 외부의 에너지를 토큰의 보유자들과 함께 분배하는 것 (예: Lympo)

- ✓ 한국 CBDC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진행할 지 (중앙권 강화, 유통마진 감소)
- ✓ 상업은행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지 치열한 토론이 예상(분산권 유지)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7단계 : 토큰 유통화 전략

단계별 Private Sales

- ✓ 토큰 상장 전후에 특정인에게 부분 매도

단계별 거래소 상장

- ✓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 토큰 이코노미의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대형 거래소로 확장

DEX 탈중앙거래소

- ✓ 분산형 거래/교환소

✓ 현재 미정

토큰 이코노미 설계 절차 프레임워크

8단계 : 실제 운영 기반 지속적 수정

- ✓ 기존 사업에서,
 - 사업계획 수립/ 관리와
 - SCM(공급망 관리) 점검/ 관리가
 - 1회성 업무가 아닌 것처럼
- ✓ 토큰 기반 사업에서
 - 토큰 이코노미 개선/관리는
 - 토큰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사업의 진행 기간 동안 계속 수정, 개선해야 하며
 - 특히 토큰이 상장된 이후에는 더욱 민감한 운영이 필요하다.

✓ 한국의 Digital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변화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강의 순서

1. 전 세계 CBDC 발행 진행상황
2.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진행
3. 한국은행의 CBDC 연구 평가
4. 국내용 원화의 한계와 문제점
5. 원화 국제화의 개념과 추진 역사
6. 파괴적 혁신 전략의 기회
7. 韓 CBDC에 대한 경영전략적 분석
 - 경영전략 프레임워크별 韓 CBDC 분석
 - 국가경영적 관점에서의 CBDC 보고 예시

국가 경영 관점에서 CBDC 보고 예시

1. 화폐의 국제 패권을 가진 선진국들이 CBDC 시대에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 한국은 오랫동안 품어온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달성했습니다.
3. 한국은 아날로그 화폐 시대에는 국제 화폐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CBDC의 변곡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격차가 벌어지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한국은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구조적,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CBDC는 내수시장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6. 한국은 CBDC를 모멘텀으로 하여 디지털 경제 구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7. 더불어 그 가속의 크기만큼 디지털 금융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금융 교육의 중요성

금융기업

일반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의 절실함

4.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금융MBA과정을 운영할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추진('06.3월 개교)
-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 관련 교육연수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설치 추진(금년 4/4분기중)

서울시·금융위, 블록체인 등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 양성한다…금융대학원 개설



 BCH \$413.53 BTC\$10,080.02 [Get Started](#) [Wallet](#) [Mining](#) [Gam](#)

South Korean Business School Launches Crypto MBA Program

A major business school in South Korea is now offering a master's degree in cryptocurrency. Crypto MBA is a one-and-a-half-year program that covers topics such as Bitcoin, Ethereum, smart contracts, crypto funds, Dapp planning, game theory, and how to write persuasive whitepapers. Meanwhile,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follow-up crypto reg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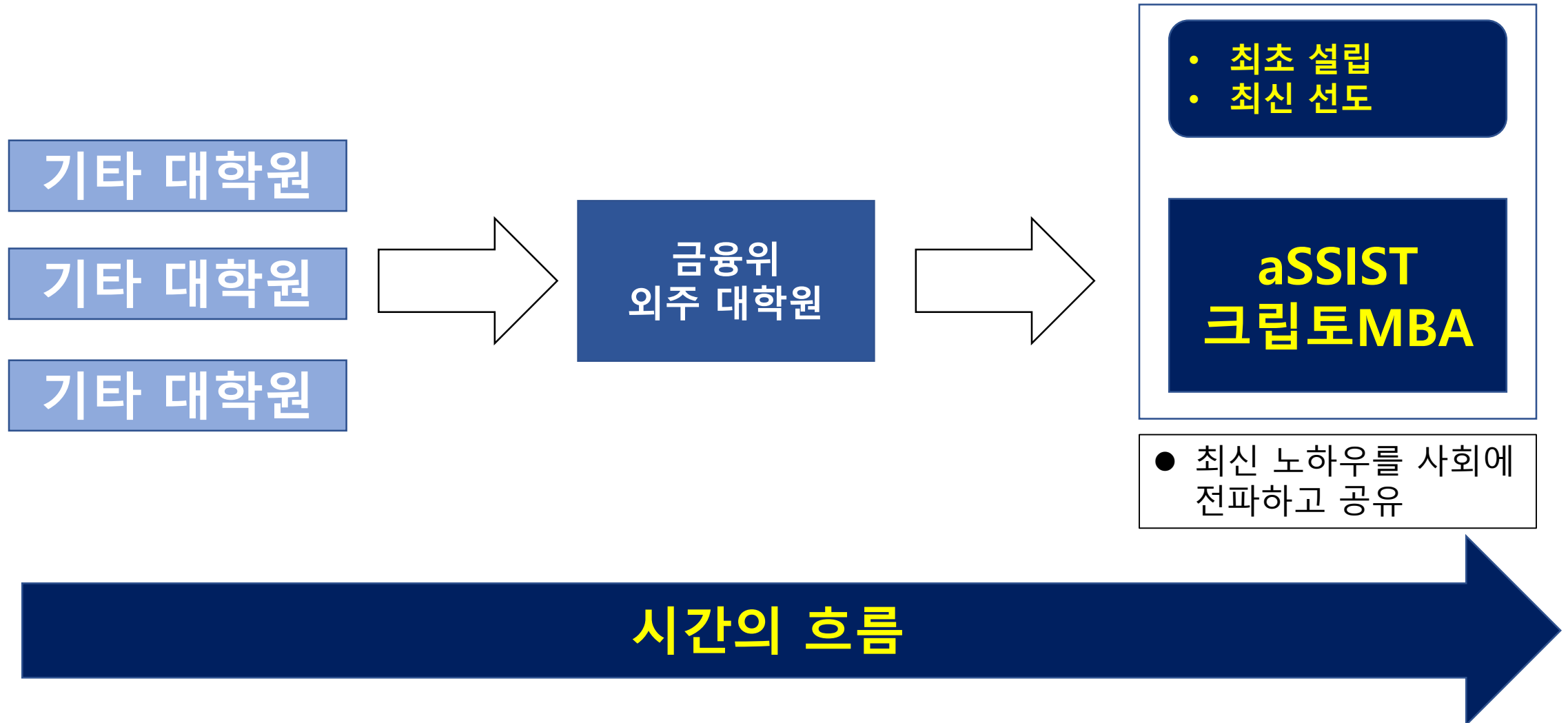
Also read: [Indian Supreme Court Moves Crypto Hearing, Community Calls for Positive Regulations](#)

Crypto MBA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often known as Assist, announced on Friday that it is now offering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degree program

 **aSSIST** 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School

크립토MBA는 최신 디지털금융지식을 최선의 방법으로 교육 선도



크립토MBA 홈페이지

<https://www.cryptomba.io/>



<https://www.cryptomba.io/>

크립토 MBA 2.0 특징

과정구성	• 주말 수업/1.5년/3학기
특 징	• 오래된 경영학이 아닌 최신 경영학 • AI/빅데이터/블록체인/크립토 등 디지털 금융 전략 집중 • 재학생/동문의 70%가 CEO/창업자/투자자
모집 정원	• 15명 소수정예
동문 기업	• 빗썸 글로벌, Dcoin, KB금융, 아하, 체인브릿지, 땡글, 스타시아, BeNative, 법무법인 더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다수
부속 연구소	• 디지털 화폐금융연구소/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 • 디지털 중국연구소/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1학기	•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u>안재욱 교수</u>) • 딥러닝의 이해와 케라스 실습 (김태영 교수) • AI와 암호학의 이해 (김문수 교수) • 탈중앙데이터의 분석과 Defi (dsrv labs 김지윤 교수) • 경영전략 (이윤철 교수) • 논문 작성 기초와 전략 (김성민 교수) • Jamovi 통계와 실습 (설현수 교수) • 중국의 이해와 중국 경영 전략(백권호 교수) • 하이퍼레저의 구조와 운영(ETRI 윤대근 교수) • 크리에이티브 씽킹과 문제 해결 (오상진 교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0년 2학기	• 비트코인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 이더리움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디지털 화폐(CBDC) • 디지털 민주주의 • 전략적 통계와 크립토 데이터 분석 • 미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거시 경제학 메커니즘의 이해 • 자산토큰화(STO) • 양자 컴퓨터 메커니즘의 이해 •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크립토 MBA 2.0 커리큘럼 (3/7 개강)

학 기	교 과 목 명
20219년 1학기	• 암호학 메커니즘의 이해 • EOS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실습 • 자금세탁방지과 크립토 세무회계 •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금융학 • 행동경제학과 인센티브 설계 전략 • 게임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 디지털 자산 거래소 • 블록체인 기반 기부 시스템 • 핀테크 경영전략

2020 최신회과정 커리큘럼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2월 (20일)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주제	인터넷은행 핀테크전쟁	CBDC 원화 국제화	에듀테크 (Edu-Tech)	디지털 민주주의	스타트업 투자	크립토 빅데이터 분석
	7월 (16일)	8월 (20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
주제	디지털 차이나 2020	디지털 인도 2020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헬스케어	크립토펜드	크립토 경영전략

강의록 다운받는 곳 <https://www.moonsookim.net/>

김문수 교수
aSSIST 크립토MBA
aSSIST 디지털전략기획MBA
aSSIST-CKGSB EMBA
aSSIST 메커니즘 캠퍼스

Home 교수 소개 교육 과정 강의록 공유 Blog



Prof. Moonsoo Kim

aSSIST 디지털전략기획MBA 주임교수
aSSIST 크립토MBA 주임교수
aSSIST-CKGSB EMBA 주임교수

연구 강의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과 경영전략,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토큰 다이내믹스, 스타트업, 중국 IT 산업

<https://www.moonsookim.net/>

유튜브 강의실 접속하시는 법

김문수 디지털 캠퍼스

 **김문수 교수의 디지털 캠퍼스**
구독자 216명

홈 동영상 재생목록 채널 토론 정보

업로드한 동영상 모두 재생

영상 제목	길이
인공지능(AI)의 실체와 응용 전략 8/8(AI가 경영 전략에 ...)	19:34
인공지능(AI)의 실체와 응용 전략 7/8(상황별 AI 응용전략)	8:40
인공지능(AI)의 실체와 응용 전략 6/8(딥러닝의 탄생과 ...)	40:06
인공지능(AI)의 실체와 응용 전략 5/8(딥러닝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RI6zyKZIDmoSwsBTrrLHg/videos>

2020년 3월 19일(목) 19시에
뵙겠습니다.

에듀테크(Edu-Tech)